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사역에 더 힘을 내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2월 18일 (토) 제 162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크리스천 난민들의 마지막 희망→교회

## 미션네트워크, 뉴스, 시리아 이라크 현지에서 난민들 돕는 교회공동체 활약상 보도

군인들, 군대 지도자들, 우유부단한 국제 지원단체... 이들 중 누가 이라크와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답은 이렇다. "우리는 IS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바나바(Barnabe)와 보트로스(Boutros)와 같은 성직자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교회를 기꺼이 개방하고 있는 사무엘(Samuel)과 같은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

망이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미션네트워크(missionnetwork.news)는 기사를 통해 오픈도어(Open Door)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 모든 사활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보도한다(Last hope for Christian refugees: the church).



시리아, 이라크 현지 교회들이 교회를 개방해 난민들을 돕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 교회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그들은 현재 강제 철거되고 있고, 여러 위협을 당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오픈도어 코디네이터인 로버트(Robert)는 기독교인들의 마음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았다.

"서양 사람이 당신은 계속되는 파괴가 주는 정신적인 충격을 도무지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IS 무장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에서 교회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 난민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를 들면, 니네베(Nineveh) 평지가 IS에 의해 장악된 후 그곳을 떠나 도망친 기독교인들에게 에빌(Erbil) 시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도움과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시나요?" 에빌(Erbil)의 주요인 무사 알 샤마니(Musa Al Shamany)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설교했다.

그는 요나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다. "배 위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물고기 배 속에서의 그의 기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물고기 배 속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그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이어갔다. "삶에서 직면한 시험과 유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해졌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저는 예수

님이 저를 실제로 만져주시는 것을 말씀을 듣다가 경험했어요. 설교를 듣는 동안 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사(Musa) 같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서로서로 돌보면서 이러한 상호 지원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위기가 처음 찾아왔을 때, 교회들은 접근 가능한 지원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인 난민들은 지역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제공해 주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님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로버트(Robert)가 현지

상황을 전해준다. 따라서 현지 교회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불안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떨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오픈도어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그곳의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었습니다."

로버트(Robert)와 그의 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면으로 계속)

#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야!"

## 타임, 고액 연봉에도 오히려 더 불행한 직업 5가지 선정 보도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다. 인문학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소득 직종 즉 "STEM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

그러나 '타임(Time)'은 놀랍게도 높은 연봉에도 행복하지 않은 직업 5가지를 선정했는데, 모두가 바로 "STEM"과 관련이 있어, 과연 무엇이 행복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척도인지를 모호하게 한다(5 High-Paying Jobs That Will Make You Miserable).

### 1. 의사(Physician)

미국에서 의사는 Top 20 고연봉 직군이다. 미국 의사들의 연봉 평균치(Median)는 15만 달러에 이르며,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연봉은 43만 달러를 넘어간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연봉,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자신의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 자살률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보다 70%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내과 의사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내과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난 후 느꼈던 혼란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나는 마치 병원이 벌이는 돈과의 전쟁에서 졸(Pawn)이 된 것 같았다. 병원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속해서 강요했다. 의사가 되는 것 말고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의사를 선택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고 고결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것이 가식이 되어버린 기분이다."

### 2. 투자은행 애널리스트(Junior Investment Banker)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역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자랑한다. 기본급 7만5천 달러에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기본급 100% 수준의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간 15만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종사자들은 주당 120시간이 넘는 노동 강도를 버텨야 한다. "Young Money"의 저

자 케빈 루즈(Kevin Roose)는 투자은행과 애널리스트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투자은행은 젊고 야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포레가 벌어들이는 연봉의 2-3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들의 인생 중 2년을 오롯이 은행에 바치도록 강요한다. 친구도 만날 수 없으며, 온종일 책상에 붙어있는 것 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 3. 영업 관리자(Sales Manager)

영업을 총괄하는 매니저 즉 영업 관리자 역시 높은 연봉을 자랑한다. 평균 12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연봉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영업 관리자는 2014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가장 불행한 직업" 리스트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물론 공허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 4/5. 치과의사 & 변호사(Dentist & Lawyer)

치과의사의 연봉 중앙값 역시 15만 달러를 넘는다.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1년 차 로펌 변호사들도 16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미국 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종 중의 하나로 꼽혔다. 변호사는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보다 3.6배나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긴 근무시간은 물론 로펌의 파트너가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에 불만이 컸다.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위정자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8면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16면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 2017 선교사집중훈련 및 PGM북미권역선교대회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일정 2017년 5월 15일(월) - 21일(주일) 6박 7일

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출,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250 / 부부(2인) \$400 (항공료 자부담)

장소 필라 안디옥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훈련내용 선교의 제4모결, PGM 4대 핵심가치, 선교사례, 타문화권 전도, 지역사회 선교전략, 선교와 영성관리, 직장과 선교, Here & Now 전도실습, 캠퍼스전도전략, 선교집회 등

현재 30여국 220여명의 PGM 선교사들은 26개 전문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PGM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실

"전문인선교사의 헌신과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마치시면 PGM 선교사로 파송되어 PGM 전문사역(지)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선교사집중훈련에 지원하세요!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 주강사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PGM 국제대표



배현찬 목사  
주에수교회 담임  
PGM 정책이사



김은범 목사  
사령의글로벌미션교회 담임  
PGM 정책이사



양승인 목사  
Hispanic Ministry



박상수 선교사  
PGM 선교사  
Here & Now 사역



폴현 선교사  
PGM 선교사  
모아뱅크 은행장



김현영 선교사  
PGM 선교사(과태탈라)  
교수/축산전문사역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사역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사역



조성명 목사  
청년/캠퍼스전문사역



고대은 선교사  
PGM 선교사  
다민족교회개혁



이준성 전도사  
City Campus Ministry



Jay Kim 선교사  
PGM EM 후원부장



연사무원 선교사  
PGM KM 후원부장

교육사역 유광수 선교사(라테탈라)  
우물사역 김현영 선교사(케냐)  
축산/교육사역 김현영 선교사(라테탈라)  
어린이/VBS John Park 선교사(미국)  
난민/공출 양동태 선교사(그리스)  
다민족교회개혁 고대은 선교사(미국)  
현지리더교육 김OO 선교사(그)  
최OO 선교사(그)

비아누에바에서 자리한 55개 국공립학교내 성경을 도덕수업 교재로 사용하여 범죄도시였던 비아누에바가 교육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청에 속한 3개 도시로 이 사역을 확장될 예정인데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설치하고 위생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물론, 지역교회를 지원하여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33년간 미국 수의병리연구관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산칼로스국립대에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현지 인들에게 갱신양 축산법을 가르치고 ESL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6년간 자비량으로 VBS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가 전혀 없던 영국 웨일즈교회에 어린이, Youth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그리스당에서 난민들을 위한 공출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00여 다민족이 살고 있는 Upper Darby에서 축조전도, 노방전도를 통해 다민족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Beyond Korean Diaspora! C국 가정교회에서 70여명의 인턴선교사를 배출했으며 가정교회 자녀들을 교육, 훈련하여 한국 평택대로 유학을 보내어 차기 크리스천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 시론

##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최해근 목사 (풍ock교회)

작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투표로 시작된 국제 사회와 한국의 정치적인 흐름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선택'일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와 같은 선택 앞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묶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선택은 이뤄질 것이고 그 선택을 좋아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을 갖고 거부하려는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첨예하고 민감한 시대 앞에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약 창세기를 통하여 '선택'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한 사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향 땅을 떠나 낯 설은 곳에 와서 목축을 하며 생활하던 삼촌과 조카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갈라서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라'(창13:9). 결국 조카 롯은 목축하기에 유리한 요단평원을 선택한 후 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조카 롯의 선택은 훗날 소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신평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에게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내용을 놓고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역시 잘못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논리적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발견'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롯이 요단들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요단들을 선택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단들을 선택한 후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소명과 비전의 삶을 살았더라면 결코 롯은 소돔의 멸망 속에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약간의 허전함 속에 놓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전과 약속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소돔 땅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소명을 품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윤리가 세워지는 곳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명과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이고 열매입니다.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옵니다. '인용' 혹은 '기각'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용과 기각을 넘어 내 민족과 지구촌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유무입니다. 이 비전과 소명이 없는 시대와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마지막은 씁쓸함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세워줄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발견입니다.

thechoi82@yahoo.com

# “위정자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처치리더스.컴, 존 파이퍼 목사가 전하는 트럼프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안 소개

최근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말이 시기적절한 이유는 그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리더의 자리에 선출되게 한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불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대통령 집권기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선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존 파이퍼 목사(John Piper) 목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비도덕적인 측면을 즉 한 국가의 리더로서 자격 미달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해준다 (John Piper: How to Live Under a Trump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보였던 행적들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미달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시사한다. 물론 이런 면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도 낙태를 찬성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미네소타 베들레헴 신학교 앤디 나셀리(Andy Naselli) 신학교 교수는 트럼프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록했다 (Can You Vote for Donald Trump with a Clear Conscience?).

▲트럼프는 간음을 저지른 것을 자



### “선한” 행위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고, 넘치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 전해야

랑하듯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 스톱트럼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전례없는 모욕을 비하하고 조롱했다. 스톱트럼프는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예를 들면, 트럼프 대학, 학교 이름만 사용하는 부동산 판매 등). 스톱트럼프는 선동꾼처럼 행동했다. 특히 토론석상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대중의 욕구와 편견을 선동했다. 스톱트럼프의 자만함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듯하다. 트럼프는 “나보다 더 성경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도 거침없이 했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일삼았다. 랜디 알콘(Randy Alcorn)에 의하면,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트럼프가 그의 생각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이 더 큰 문제다. 특히 그가 집착할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외적인 모습들, 섹시함, 피상적인 모습, 재물, 신분과 성취, 사람을 쉽게 비하하고 조롱할 수 있는 자질, 그리고 반대에 선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다.”

웨인 그루덤(Wayne Grudem)은 트럼프의 측에 있던 신학자로 지난 10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번 선거에는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 나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를 '몇 개 단점이 있는 좋은 후보자' 혹은 '결함 있는 후보

자'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도덕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았고 특히나 그에게 대통령 선거를 포기할 것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2005년도의 행동을 폭로하고 나섰는데 여성을 비하하는 트럼프의 말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과연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한탄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본인의 과거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그가 사용한 단어에 대해 단지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화장실 대화"라고 둘러대며 그 말의 위중함을 경감시키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의 언어가 아닌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제 "리더십"에 비추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펴보자.

정부의 고위 인사층 내에서 리더십을 살펴보면 트럼프와 같은 고집스럽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그를 공직자의 자리에서 퇴출시킬 명분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리더는 말 그대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다. 즉,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속도와 길을 보여주고 비전을 품고 전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고 싶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그리고 팔로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리더란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그는 정반대의 도덕성과 인격,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2. 리더는 의지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언제든 왜곡시키고 뒤를 수 있는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진실이 모욕당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 정의의 기틀은 흔들리게 된다. 부자들이 진실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이 설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다.

3. 리더는 어리고 젊은 세대에 좋은 인격과 도덕성, 교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다.

4. 리더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얻은 성공을 본보기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악습을 부추기고 일상화 시키게 되면 국가 안에서 서로의 신뢰를 잃어갈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트럼프의 비도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염려된다. 삶에서 악행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게 될 것이 걱정된다.

5. 리더는 공화국의 의미와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mailto: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크리스천 난민들의 마지막 희망→교회

(1면에서 계속)

지역 노동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은 영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에 점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난민 캠프에서 이라크의 기독교인 난민들을 위한 일들은 대규모의 국제 지원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따라서 몇몇 큰 규모의 지원 프로젝트들은 국제적인 관심을 얻었다. 하지만 몇몇 작은 마을들에서 난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픈도어가 이러한 노력들

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국제단체들, 정부, 그리고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라고 로버트는 말한다.

현재 이라크의 난민 교회들은 2003년에 시작된 소모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리아는 다섯 번의 전쟁을 겪었다. 로버트(Robert)는 이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전체 사회가 얼마나 표류하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700만명 이상의 난민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난민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관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한 교인들조차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IS는 교회 건물을 장악하고 무너뜨렸으며, 성경책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은 전해졌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2면에서 계속)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린 위인들은 덕 있는 사람들이 없는 범죄주의와 대표민주주의와 자치정부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의 인성은 그들이 “덕목”이라고 여긴 것과는 정반대로 보이고 결국 공화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리더십의 자질들은 공직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기독교에게 이런 결과는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기독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악한 리더십 아래에서도 생성되고 부흥해왔다. 살인자 헤롯 왕(마2:16),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인 네로 왕(타키투스, 연대기XV.44)이 존재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요18:36)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구속의 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능력은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정부의 힘과는 전혀 별개의 힘이었다.

기독교인의 신앙심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독교의 교회와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히려 때론 과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고전1:27)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는 상반될 때가 많으며 독점언론, 부와 민법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미국인 먼저(Americans first)”라는 슬로건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 충성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말씀을 찾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서약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미국의 헌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자(딤후2:25; 행11:18). 그리고 트럼프와 모든 위정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롬10:1; 빌1:29; 엡2:8).

**2**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왕들 위에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자(단2:37-38; 4:35; 시47:9; 135:6).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뿔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21:1).”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의 교만과 허영심을 억제할 수도 있는 분이다(창20:6).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렘25:9),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도 한다(사44:28).

**3**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것이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2-4).

**4**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선한” 행위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뿌리깊이 신뢰하며 행해지지 않는 인간의 행위는 이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큰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믿음이 없는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악행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벧전2:1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가 신앙을 기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이 실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외면상으로 나타난 결과적으로는 믿음 위에 행해졌을 행동양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구원의 교리와는 별개로:편집자주].

**5** 따라서 위의 논리가 기독교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영성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더라도 이 차선의 “선(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인

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벧전2:12)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벧전2:9)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이다.

**6**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4:4)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계층을 뛰어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모아 건강하고 경건한, 겸손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제는 보다 더 다채로운 환경과 조화 속에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히12:28). 그리고 서로서로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벧전1:22), 교회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벧후1:4)을 피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약1:27).

**7**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고전15:10), 넘치는 기쁨으로(고후8:2) 헌신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딤후1:15)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벧전3:18; 시16:11).

결론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비탄에 잠겨 있지 말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정치와 경제적 혜택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고 우리는 복음에 빛난 자임을 잊지 말자(롬1:14).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적, 사회적 결함들을 큰 문제더라 여기며 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축복더미들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세상의 구원”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의 불을 지피자!

## 재플런 임상목회 ②

###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필자 주: 본 칼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백인들이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인 관계로, 입원 환자가 백인(Caucasian)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동양인 환자들이 있지만, 한국인 환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진에 참여하여 의사와 상담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 사회복지사와 함께 어느 병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환자의 외모나 이름을 보니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진을 마친 담당의사는 저에게 그 환자를 따로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간담 말기에 전신에 이미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으며 우울증의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이라는 이 환자는 이제 겨우 60대 초반이었고 20대 후반의 두 자녀를 둔 이혼녀였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은 남가주에 다른 한 명은 멀리 동부에 살고 있어서 비상 연락처는 인근 도시에 사는 사촌 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오후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환자는 병실의 모든 전등을 다 끄고 창문에도 블라인드를 단아서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재플런이란 소개에 방문을 허락했지만 힘이 다 빠진 저의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분은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고, 죄책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감정에 동조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재플런에게 환자는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차트에는 ‘특정 종교 없음(No Organized Religion)’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자신이 20여년 전까지는 한인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고 도박장에서 만난 어떤 외국인과 결혼했지만, 마약과 도박에 빠져 건강을 돌보지 않던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날까지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말기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된 사실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돌아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 환자의 사촌 언니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자기 어머니와 전화 통화나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속된 방문을 통해서 환자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자녀들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으로 도망치듯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그 벌을 받아 죽게까지 되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 사람과 간신히 통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몹시 그리워하며 죄책감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설사 계속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아가도 하더라도 자녀들의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전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면서 병원 주소와 입원실 등을 문자로 보내주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일이 지나서 환자를 찾아와서 얼굴만 보고 가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를 용서했거나 용서하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환자는 자식이 찾아온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안하던 화장까지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안고 한 시간가량을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 깊은 곳의 상처들을 치유 받았습니다. 그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도 연락을 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마치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편지를 남기고 자신의 유품을 전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일주일 후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듣다가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부탁으로 인근 도시에서 준비된 고인의 장례예배에 참석했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순간들을 가족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자녀도 어머니와 보낸 순간을 함께 나누었고, 흠뻑 젖어서 서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지냈던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고인은 비록 탐욕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족을 떠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육신의 병까지 얻어 이 세상을 하직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므로써 자녀들의 신앙마저 회복시키고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고인의 추모예배까지 드린 사진도 전송해오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시고 고인의 모습을 기억해봅니다.

tdspark@gmail.com

# 2017년 봄학기



#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 봄학기 개강일: 2월 21일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http://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mailto:admissions@buc.edu)  
TEL: 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http://www.buc.edu)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굴복시키는 승리만 승리가 아니다 -암브로시우스

바티칸 성당 중앙에는 사도 베드로가 의자에 앉아 있는 조각상이 있다. 베드로가 앉아있는 의자 모서리를 들고 있는 네 사람을 가톨릭의 4대 박사라고 칭한다. 그들은 서방의 박사로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 어거스틴, 그리고 동방의 박사로 아타나시우스와 크리소스톰이다. 이토록 암브로시우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로마귀족의 아들로 아버지의 근무지인 독일 남부의 트리어에서 339년에 출생했다. 부친이 죽은 후 그는 부친의 친구인 프로부스의 도움으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법학과 수사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었다.

프로부스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370년, 32살의 나이로 밀라노 근교인 에밀리아와 리구리아의 지방장관에 임명되었다. 374년 아리우스의 사상가인 밀라노의 주교 아우센티우스(Auxentius)가 죽자 정통파와 아리우스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참석한 암브로시우스는 회중을 향해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설을 하는 중에 한 어린아이가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라고 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으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외침으로 밀란의 감독으로 열렬결에 취임하게

되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말이다. 아직 세례도 받지 전이었기에 373년 11월 24일에 세례를 받았고, 12월 1일에 서품을 받아 감독에 취임하였다.

그는 특히 강력한 황제 테오도시우스와의 대결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379-395)는 신앙이 투철했던 황제였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Theo, Diosius)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황제였다. 그런 그에게 390년에 놀라운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주민들의 폭동으로 야기된 일이었다.

당시 데살로니가 총독으로 고트족 출신인 부테리이 로마군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참모들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을 탈취했고 격분한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사령관과 참모들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시체를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도전을 했다. 그것은 강력한 패권국가인 로마제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 보고를 받은 황제는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항거한 주민들을 죽이라는 명을 전령사에게 내려 보냈다. 그 명령을 받은 로마군인들은 현자인 6천여 명을 살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를 향해 대노했다. 공식적으로 참회할 것과 허락이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그러나 황제는 부활절에 측근을 이끌고 교회에 들어오려 하였고, 암브로시우스는 교회 입구를 막고 완강하게 들어오기를 거절했다. 황제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성탄절에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나 주교는 또 다시 교회 입구를 막아서서 먼저 참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황제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만 모방하지겠습니까?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지 않겠지요? 황제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찬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했다. 황제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는 양 같은 순전한 겸손함에 놀랐을 것이다. 권력과 세상 힘은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자존심을 높게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여간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황제가 감독의 그 어떤 책망도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런 식의 책망이 필요했을까 명령 한 마디로 주교를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주교의 책망을 듣고 순종한 그 겸손함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싶다. 변명 같지만 황제는 로마 총독을 죽인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보복하라고 했지만 곧 지나치다고 여겨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전령사를 보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재차 내린 명령을 받은 전령사가 너무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동서 로마를 통일한 대단한 황제를 철저하게 굴복시켰다. 자신의 우렁찬 명령, 황제는 회개하시오! 라는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에 저 위대한 황제가 성전 입구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주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 로마제국이 주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시민들은 암브로시우스의 담력에 놀랐을 것이고, 또한 비범한 황제의 양 같은 순전한 겸손함에 놀랐을 것이다. 권력과 세상 힘은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자존심을 높게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여간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황제가 감독의 그 어떤 책망도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런 식의 책망이 필요했을까 명령 한 마디로 주교를 날려버릴

당회장실로 불러 이번 일에 황제는 잘못했소이다. 회개하시오.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 동안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었다면 결과는 어찌되었을까?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일방적 승리는 역사적 양극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들에게 교황이 황제보다 위대! 라는 논리를 적용하려는 단초를 주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논리를 교황 수위권(首位權)의 신수설(神授說)이라고 한다.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온통 진흙탕 싸움이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동물적인 싸움, 내가 당신보다 높다, 라는 치졸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싸움들이 교황청과 황제들과 끊임없이 접점되었다.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말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을 추구하려 할 때만이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즉 온전히 굴복시키는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



사람의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이요, 둘째는 자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릇된 생활, 실패의 생활, 범죄의 생활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 실패의 생활, 범죄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자신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여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43-45).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슬픈 발견입니다.

삼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

20:40)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도 주의 일로써 분주히 뛰어다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또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데 사랑하는 아내가 문을 가로막고 서서 눈물이 글썽이며 말합니다. "여보! 일은 많이 하고 기도

다. (They sought Him sorrowing) 그들은 먼저 예수를 그들의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모들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친척을 아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줄 수 있는 빛과 도움을 어떤 때는 친구와 교회 친구들을 찾아 뛰어다니면서 그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잃은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것을 슬픈 찾음(수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주님의 임재의 필요를 느낀다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한 것처럼 예수 잃은 것을 큰 불행과 두려움으로 알고 눈물로써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를 잃은 두

가 있다는 확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할 후"라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할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우리가 구하는(찾는) 분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즉 살아계셔서 거룩한 천국 성전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3) 어떻게

"아버지의 일에 관해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답변을 들어 봅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혹은 "내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참 교회요,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4. 수종드심

부모님께 발견 된 예수님의 모습에 주의합시다!

1) 예수는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낱마의 생활에서 기쁨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까.

지금도 예수는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자들과 함께, 낱마다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예수를 발견한 사람에게 어떻게 빛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과 함께 이 낮고 천하고 괴로운 곳으로 함께 내려가셔서 빛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십니다.

2) 그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필요와 모든 것에 자신을 순응시켰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찾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상태 모든 요구에 대해서 구주십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독 속에서 함께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험벗고 배고픔 속에서 함께 험벗고 배고파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예수님을 찾자 (누가복음 2:41-51)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과연 임마누엘 이신가?  
나는 내 일, 내 가정의 일, 세상의 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를 위한 일을 제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생활에서, 세상일에 분주하든 핑계로 예수를 몰아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재물을 별만큼 여유가 없다고 핑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를 위해서 게으른 심령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를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예수의 일에 무관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낮인 자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빛 되신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를 찾아 만날만한 지금 주예수를 찾아 모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12살 때 예수로써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는 숨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를 찾았고 만난 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의 몸을 떨쳐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20)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예수의 부모에게 있었습니까?

1) 예수께서 친족과 아는 자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예수의 부모들은 '아마 다른 친구들과 친밀히 사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 없이(떠어 놓고) 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동행중에 있겠지"하는 생각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의 압력 즉 "따라 오시겠지..."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종이) 이러저러 일 보는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왕상

2) 찾아 나섬(수색, 추구)  
예수 없이 하룻길은 3일간의 슬픔 속에서 찾는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모들이 한 일을 살펴봅시다.

1) 그들은 예수를 당장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갈가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곳까지 되돌아가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을 더 빠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없다고 느낀다면(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열심을 구하십시오.(찾으십시오)

예수를 양망하십시오.(Wait on the Lord) 예수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2) 슬퍼하면서 예수를 찾았습니

려운 감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잃은 불행과 두려움은 눈물로 예수를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할 상태에 있지 아니합니까?

3. 만남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1)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향 집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은밀히 기도하는 곳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감동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복된 영적교제는 하나님을 속히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납시다.  
2) 언제  
"사할 후에"  
우리는 예수를 찾는 각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심오한(깊은) 진리

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를 찾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그를 만납니다.

"구원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개인의 생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 받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피로 값 주고 사서 세우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과 재물을 희생하는 신자가 참 신자요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는 신자입니다.

1. 발견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행정명령”에 대한 7가지 사실과 진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방문자 행정명령-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Refugee”이 떨어지자마자 계속 많은 잘못된 사실들이 주류 미디어의 왜곡된 표현들과 선동적인 내용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전체 연방법원 케이스들을 맡고 있는 9thCircuit 법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헌법적이라고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으나 (James Robert 판사, 시애틀), 트럼프 정부가 미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한 상태라서 9thCircuit 법정은 뒤로 물러갈 거라는 예견도 있지만 주류미디어는 여전히 치우친 뉴스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나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9thCircuit 법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결혼의 정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20일간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7국가들-ISIS 테러국가들 또는 ISIS 테러와 연결된 국가들에서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영주권자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되고 또는 해당이 안되기에 “case by case”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한국은 ISIS 테러국가로 미국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번도 지명된 적도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번에 “난민/방문자 행정명령”에 적힌 7개 국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KOREAN(한

한 중동(특별히 지명된 7개) 국가들로부터 난민들을 미국이 꼭 받아야 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난민들을 우선순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본문 Sec. 5(B) 참조).

미국의 주류미디어가 “인본주의” 명분들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무슬림국가들 안에서 가장 많이 잔인하게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고, 뼈가 부서져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개는 3, 4살짜리 아이들까지 목이 잘려나가고, 그들 성폭행을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여성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통탄스러운 사실입니다!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서 2016년 3월에 보고하

안의 명분은 진보주의자들의 명분이 늘 그렇듯 듣기는 좋지만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안”처럼, 사실상은 언론의 자유를 또다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무슬림들이 자신이 “차별 당했다” “기분 상했다” 등등의 시비를 걸면, HR569에 의해 누구든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넷째, “미국을 다시 미국으로 회복되길” 원했던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정부가 컨트론타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무슬림난민들의 난동과 샤리아법을 그 나라 법으로 인정하려는 위협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난민행정정책”은 무슬림 금지가 아닌 범죄자, 테러자 확인 절차 종교적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 당하는 난민 우선적 허용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민발의안인 Proposition 8(Prop. 8)을 2008년 11월 대선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2012년에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3명의 판사들이 2대1로 뒤집은 전력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정식 투표로 통과했었던 Prop. 8이 당시 이 케이스를 맡은 경우 2명의 샌프란시스코 판사들 중 3명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동성애부부의 손을 들어줬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한 사실과 그 동기를 직접 대통령 행정명령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 점진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트럼프정부가 지명한 7개의 ISIS 테러 국가들이나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나라로 지명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유자들이며, ISIS 국가들과 상관없는 나라에서 온 다른 국적을 가진 유학생, 회사원들, 일반 방문자들입니다.

인은 유학생이든, 회사원이든, 자금 비자를 받고 있는 여행자들이든 누구든 이번 난민/여행자 정책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황교안 총리와 30분간씩이나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대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한국의 안전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난민 행정정책”의 사실과 진실은?

1. “무슬림 금지”가 아닙니다. 행정 명령문을 읽어보면(아래 영문참조), 여기에는 이슬람 또는 다른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금지, 무슬림 차별, 인종차별” 등의 표현들은 CNN 뉴스와 진보주의의 주류미디어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단어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 목적은?

첫째, 무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명목으로 테러를 범하는 범죄인들과 범죄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이며 “테러자”들을 미리 차단하여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본문 Sec. 1&2 참조).

둘째, ISIS 테러 단체들이 점령

를 ISIS가 시리아에서만 무려 2,100명을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다 죽였는데 그 당시,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의 온 동네 길들이 다 막힐 정도였다고 보고합니다.

셋째, 지난 8년 친이슬람 정책들이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Political Correctness - 정치적 정당성”라는 명목으로 공립학교 교육, 문화, 사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차세대들을 브레인워시(brainwash) 시키고, 미국을 건국했던 가치관들도 변질시키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인 외국나라의 법(예: 이슬람 샤리아법)을 미국헌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 심각성을 예로 들면, 2014년에는 7개 주들이 이미 자기 주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이슬람 샤리아법을 금지한다는 ‘Ban on Foreign-Law’를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민주당에서 샤리아법을 미국의 법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HR569(Condemning violence, bigotry, and hateful rhetoric towards Muslims in the United State)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다행히 통과 못시켰는데, 이 법

3. ISIS 테러를 그동안 가장 많이 일으킨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중동국가들”에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7개의 중동나라들은 2015년 미국 보안팀에 의해 검증된 “Terrorist Prevention Act of 2015”에 기반을 둔 것이며, 오바마 시절에, 결모양밖에 없었던 국가보안시스템에 더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 미국 안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을 확실히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thcircuit 법정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중지를 걸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월 3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72%가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예멘의 7국가 출신이라고 발표하며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11의 72%의 난민입국은 미국 보안팀이 사용하는 국가난민조사센터(State Department’s Refugee Processing Center)에 근거한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천국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의인만 들어간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긴 해도 늘 죄를 짓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토렌스에서 황은숙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와서 8년 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주로 먹는 태생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시민입니다. 이것을 한국 방문할 때에 더욱 확인합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하는 입국심사대에 서서 미국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입국심사대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죄에서 태어나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 죄를 짓는 죄덩어리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3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란 단어는 세상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 condemnation)입니다. 둘 다 재판관이 내

###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 법적 의인으로 천국행

리는 판결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법정에 출두하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개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출두합니다. 이때 검사는 기소를 하고 변호사는 피고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검사 가 어떤 죄 저런 죄를 지은 것으로 말하지만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판사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으로 보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무죄선고를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도여러분 어떤 문제로 법정에서 보셨습니까? 죄가 없어도 떨리는 곳이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는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저놈은 사형판결로 지옥가야 마땅합니다, 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변호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고 그의 죄 값으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제가 대신 저 사람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우시면 안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변호의 말을 듣고는 “그래 너는 죄 없다” 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즉 칭의의 은총입니다. 롬4: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디카이오스” 즉 의가 전가되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제 당당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의인된 자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시민권을 받았으므로 미국시민인 것처럼 양심적으로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법적으로 천국시민이 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구주르 라자스타니(GUJR RAJASTHANI)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구주르족의 통합 프로그램.

구주르족은 3개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민족으로 이뤄져 있는데, 총칭해 "구주르 라자스타니족"이라 알려져 있다.

여러 이슬람 집단들이 11세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힌두교도인 구주르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분개한 이웃 힌두교도들은 봉기를 일으켜 이 지역을 장악했다.

1947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립이 일어나자, 또 많은 종족의 이동이 생겼다.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주했고,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몰려갔다.

삶의 모습

11세기에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구주르족은 빈곤한 삶과 문맹, 사회적 억압에 찌들려왔다.

남 인도에 살고 있는 구주르족 대부분은 법을 잘 지키는 목자와 농부들이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보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으며 종족은 도둑과 방랑자라는 라벨이 붙여진다.

인도 북동부의 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주르족은 물소를 키운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물소의 수와 그들이 산리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제를 가했다.

카슈미르주에 살고 있는 구주르 유목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종종 농락을 당하는데, 이들은 구주르의 농산물을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자신들의 것으로 해서 시장에 내다판다.

구주르족의 카스트는 종교적,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 널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지는데, 하나는 무슬림 구주르이고 또 하나는 힌

두 구주르이다. 무슬림들은 계절적인 유목민들로서 정착기 동안 창문도 없고 방 하나뿐인 가옥에서 거주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 대부분은 집시 같은 사람들로서 땀장이, 방랑연주자, 무역상, 점쟁이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산립지에서 사는 구주르족은 대개 산리 주변의 개척지에서 집을 짓고 산다. 가옥은 1-3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평평한 지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슈미르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은 전형적으로 모가 난 지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집안의 가리막이 없는 화로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

안 대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다.

구주르족은 수백 개의 씨족으로 나뉘진다. 그들 사회는 부계사회로서 유산은 부자 사이에 물려진다. 결혼은 대개 부모 간의 중매로 하며, 신부값으로서 현금이나 물소가 신부가족에게 지불된다.

3개의 구주르족 모두가 구주르어를 말하는데, 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요소가 그들이 구별되는 하위 집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은 또 파슈토어나 다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 계통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75%가 사용한다.

신앙 구주르족 대다수는 무슬림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힌두교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에도 불구하고 가족신상을 숭배하며 "홀리(Holi)"와 같은 전통적인 힌두교 축제를 지킨다.

무슬림인 구주르족은 힌두교 관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카쉬미르의 무슬림들은 최근 카쉬미르에 들어온 구주르인 무슬림 유목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주르족은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주르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문자를 개발하거나, 지역 언어 중 하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번역 워크숍 1000개 올해 새로 시작

위클리프 협회(wycliffeassociates.org)는 올해 새로운 성경 번역 워크숍 1000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회는 1967년 설립된 국제 성경번역 사역단체다.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존 위클리프(1320-1384)의 정신에 따라 모국어 성경이 없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2014년 개발한 번역 프로그램 '마스트(MAST: Mobilized Assistance Supporting Translation)'를 사용한다.

협회는 전 세계 수백 만 명이 아직도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주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린다 판스톡 MAST 간사는 "번역자들은 하나님이 준 영감으로 번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

미 "北미사일 발사 용납못해..."

미국 국무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확고한 동맹 방어 의지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 "우리는 모든 국가가 동원 가능한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면 발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노력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과 역대 불안정 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확장억제력을 제공 포함 동맹 방어에 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50개 주의 목회자와 작가 등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8일(현지시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직원이 고립된 마을에 구호물자를 운송하다 IS의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기독교지도자 500명 트럼프 '반이민명령' 반대 광고

광고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표현돼온 '고난 당한 자를 섬기라'는 역사적 부르심 앞에 있다. 이 부르심을 지금 버릴 수 없다"

한일 양국의 카운터파트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회성본부장, 겐지 가나스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 각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과 함께 공동 대응, 동맹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엔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새 고체연료 전략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군 당국도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여파, 미국 선교사들 활동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번에는 전 세계에 활동 중인 미국 선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민심이 악화되면서 현지인들이 미국 선교사와 NGO 직원들에게 고개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9일 선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당사국인 이란 이라크 등 7개국을 물론 대다수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선교사들의 사색도 위축되고 있다.

프론티어스코리아 이현수 선교사는 "겉표 지역은 경제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인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국 선교단체인 OC선교회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소속 선교사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지 말 것'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할 것' 등의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

조용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 미사일 미군, 한국, 일본의 도시들을 타격하기 위한 핵무기 운반용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미국 50개 주의 목회자와 작가 등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중동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미국 입국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고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표현돼온 '고난 당한 자를 섬기라'는 역사적 부르심 앞에 있다. 이 부르심을 지금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빛 찾은 IS 지도자와 야쿠자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라 해도, 약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 빛의 밝음을 보여주신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광고는 주도한 월드 릴리프의 스킵 아르바이트 회장은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의 정책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란 등 7개국 이슬람 국가 출신 여행자들의 일시적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에는 1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북쪽주의 기독교가 세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인, 한국계 미국인 목사 등 4명 전격 체포

중국 공안이 최근 지린성 옌벤에서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조진숙, 탈북자 등 일행 4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중국 내 북수의 북한 선교사들이 11일 밝혔다.



북한 선교사들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지린성 옌벤시의 모 호텔에서 투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일행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북한 선교사들은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한국계 미국인 박원철(50대)목사, 중국인 김모 전도사(50대), 중국인 손모씨(40대), 탈북자 김모씨(30대)로 이들은 모두 순수하게 선교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행 중 박 목사는 수년전부터 중국 지린성 등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

이어 "탈북자 김모씨의 신변이 가장 위험하다. 강제복종의 위험이 있다.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보위부에 의한 중국인 납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약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결단의 출발점-성경의 진리

500년 전, 종교개혁을 결단하고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중세 교회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대중을 선포하고 결집하는데 능숙한 혁명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한 치도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려하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끝까지 정당성을 고집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나아가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말과 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명성을 얻고자하는 의도도 없었다.

마르틴 루터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비쳐진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가 주도한 개혁은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거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로 하여금 교회 개혁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준 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되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강한 훈련을 견뎌야 했다. 당시에 그와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였다. 이미 형성된 기존의 틀 안에서 살아가던 그였지만 결단을 가능하게 하였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쳐진 교회의 현실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었을까? 18살이 되던 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한 후 성경을 직접 읽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태어난 후 처음 읽었던 일이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멀리하였거나 나태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당시 성경은 사제들의 손에 있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제들이 읽어주면 듣는 정도로 성경을 대하였던 것이다. 물론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읽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사제들이나 성도들의 신앙은 수동적이며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

다는 것이다. 향후 그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 시절을 지나고 더욱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사역을 하면서 성경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하나

한 객관적이며 분명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2천년동안 흘러온 교회의 역사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요약될 수 있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이후 5백년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과연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였느냐 아니면 이탈하였느냐

만일 중세 교회가 루터의 개혁 사상을 무시하고 침묵하였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초기 루터는 무명의 신학자였다. 교회의 반발과 적극적인 대처가 도리어 그를 중요한 인물로 부상시킨 것이다. 그의 개혁 사상에 독일과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

져 있는 수많은 객관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종교개혁 500년 주년을 맞는 현대 교회가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을 찾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무엇보다

가?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일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들일까?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일까, 아니면 목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목회자들일까?

500주년을 맞아 교회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 하나는 '성경적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이레야 한다, 저레야 한다하며 서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드러내려는 자혹을 겸손하게 접어야 한다.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다른 하나는 '현대 교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개혁이란 큰 소리를 내며 대모하거나 걸치레로 덮어진다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은 개신교회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독교를 상대적인 종교로 여기며 타종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화합을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초된 복음을 배격하고, 몰락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기복신앙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환영을 받고 있다.

5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성경적인 기준에서 심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현대 교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일은 '성경적 교회론'을 재확인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숙제이다. 만일 현대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기회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기인된 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자율적인 주장을 따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개혁을 위하여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교회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했는가, 이탈했는가 기준

님의 말씀을 경외심으로 대하던 그의 태도가 루터로 하여금 성경에 입각한 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성경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혁의 일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확인하고 결단하게 된 것이다.

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루터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중세 교회의 오류를 발견하면서 나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던 교회를 다시 제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

는 사람들의 수가 눈덩이와 같이 불어났다. 교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다. 루터의 글과 말은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했다. 그가 제시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개혁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 현대 교회는 5세기 전의 상황과 매우 다른 형편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비평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사실 그들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그

①분명한 '성경적 교회론' 확립 ②'현대 교회 현주소' 파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결단의 내용-현실에 대한 고민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분명히 성경이지만, 한편 그가 동시대 교회의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고치고 변화시키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 개혁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에 대한 외침이 드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대 교회를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에 대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던 것을 지적하며,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한 것이 다.

그러나 교회의 반응은 전혀 그의 기대와 달랐다. 성경에 근거하여 지목된 구체적인 오류의 개혁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었다. 도리어 개혁을 부르짖는 루터에 대한 격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몇 번에 걸친 청문회와 논쟁을 통해 루터의 생각을 바꾸어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루터는 이 기회를 통하여,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중세 교회의 신학적 오류를 맹렬하게 지적하였다.

을 거절한 것은 물론, 아예 그를 교회로부터 잘라낸 것이다. 중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하자는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전적으로 배격한 결과,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닌 개신교회가 출발될 수 있었다.

현대 교회-결단의 출발점과 내용

루터가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의 분명한 대상이었던 중세 교회와 달리,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으로 출발한 개신교회의 역사가 500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개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 역사 교과서에 담겨

들의 관점에 대한 현명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주장의 기독교에 대한 진리와 동떨어진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종교관"에 입각한 것이라면, 분명 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방법이란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개혁은 성경의 진리이다.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성도와 교회의 윤리와 도덕적 원리를 가르친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자율적인 주장을 따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개혁을 위하여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1st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1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7년 5월 16일(화) - 5월 19일(금) (3박 4일)
2. 총회장소: THE HOTEL ALYESKA (www.alyeskaresort.com)
1000 berg Avenue | Girdwood, AK 99587 (Tel:1-800-880-3880)
3. 숙박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Table with 4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 2차(3월 1일), 3차(4월 1일). Rows include 2인1실(1인당), 1인1실, 부부, 원로/성로 목사 (2인 1실), (부부).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3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총회 전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체류하실 분들은 미리 총회 준비 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APC
\* 주소 : Rev. Jae IL Yoo (유재일 목사)
Anchorage Open-Door Presbyterian Church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8220 Briarwood St., Anchorage, AK 99518
907)344-6446, (FAX) 907-344-3182 / kopc@hotmail.com

- 5. 교통안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착공항과 시간, 항공편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리지 공항 ANC South Terminal로 오셔야 픽업이 가능합니다.
6. 접수: 첫째 날 (5월 16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교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7. 기타: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교회: (907) 344-6446, (907) 350-7907
호 텔: 이진우목사 (778) 389-3391
관 광: 최성은목사 (403) 431-2507
총 무: 장철현목사 (778) 899-750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주후 2017년 1월 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제41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진우 목사 서기 문석호 목사

# 리더십 코멘터리 (3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리더의 자신감 바이러스

비관주의적 낙관주의(Pessimistic Optimism)

신앙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이다. 예일대학교의 펠리칸 박사는 기독교 신앙에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공존하는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내가 범한 죄악을 바라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다. "수염과 털이 많은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한 마리를 데려오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프리카로 고릴라를 사러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에 좋은 고릴라가 한 마리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심한 비난과 모욕을 퍼부은 스탠톤이지만 그가 유능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를 휘하의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링컨이 그를 믿고 쓰러졌을 때, 일찍이 그의 인격에 감복한 스탠톤은 링컨의 조용한 얼굴을 보며 다음과

를 가지고 있는가?

③리더는 난관을 극복할 정보에 예민한 사람: 유능한 리더들은 훌륭한 화자(Speaker)인 동시에 청자(Listener)이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와 일,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항상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향상시킨다. 동시에 누구에게서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난관을 피하기 위해 늘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④리더는 위기수용자: 리더들은 모험가이자 위기 수용자로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어떤 큰 위기가 닥쳐와도 끼꺼기 감수한다. 롱펠로우의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⑤리더는 역경에서 깨닫는 사람: 누구나 인생에서 큰 역경과 위기, 실패를 겪게 마련이다. 탁월한 리더는 아렸을 때 겪었던 남다른 좌절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런 고통을 통해 미래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는 리더를 성장시킨다. 리더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므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다.

모든 일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리더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일관성 있는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어떤 고난과 실패가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원칙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②리더는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야 한다. 독불장군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결과에 대한 공을 동역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는 빠질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③리더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기회가 온다 해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피곤하지 않고 한계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떤 일에도 거기에 기름부음이 있어야 한다. 일 위에,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열매를

## 리더의 자신감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 항상 주님 의지 자기 지식에 뛰어나며 경청, 난관극복정보에 예민, 위기수용 해야 원칙이 있고, 동역자 세우고, 실력과 능력 갖추는게 문제해결 원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닌 낙천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앙을 '비관주의적 낙관주의(Pessimistic Optimism)'라고 정의했다.

리더의 가장 큰 극복중의 하나는 그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은 리더에게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큰 자신감을 심어준다. 리더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리더는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식과 함께 늙어 간다. 리더는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 리더에게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실망이 있으면 늙어가는 것이다.

### 최고의 인품을 가진 리더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다. 스탠톤(Edwin Stanton)은 아브라함 링컨의 적이이다. 그는 링컨에 대하여 아주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

같이 눈물로 말을 했다. "여기에 누워 있는 이 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 탁월한 리더의 특징

①리더는 자기 지식 면에서 뛰어난 사람: 탁월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신의 자질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그는 오늘도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②리더는 열린 귀를 가진 사람: 좋은 리더들은 자신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가지 있고 다양한 권원을 개발한다. 핵심은 역동적인 리더들은 가지 있는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얻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리더들에게 피드백을 위한 최고의 근원은 배우자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200대 기업 중 40여명의 CEO가 첫 배우자와 살고 있었으며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그들은 진정으로 신뢰할만한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리더로서 가지 있는 피드백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열린 귀

⑥리더는 전통을 받아들이는 사람: 유능한 리더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뿐 아니라 전통도 받아들이야 한다. 리더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면 전통과 안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한다. 리더는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을 알아야 한다.

⑦리더는 협력하는 사람: 유능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⑧리더는 훌륭한 역할 모델: 좋은 리더들은 좋은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역할 모델과 선구자 노릇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역동적인 리더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게 되고, 사람을 길러내게 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원리

①리더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리더의 인생에는 단단한 바위처럼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더가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말씀이다. 영적리더가 행하는

매게 되는 것이다.

###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하돈 스펔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영적 리더가 되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스펔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의 삶과 사역은 항상 주님이 자신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스펔전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며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스펙전의 믿음은 그에게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했다. 워터비치(Waterbeach)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무렵, 스펔전은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 이레이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스펔전은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리더가 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씨대학교 교수)

## 어느 목회자의 은퇴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회의 길을 갔던 형부가 작년 말로 은퇴를 했다. 형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언어로 직접 표현할 기회는 없었지만 형부는 형부라는 관계를 떠나 한 목회자로서 내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다.

믿음 좋은 평신도와 결혼한 딸이 갑자기 사모의 길을 가게 생긴 것이 마땅치 않은 장인의 눈치도 바라며 처가에 살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형부는 경상도 구석으로 첫 목회를 하러 갔다. 그 때 알게 된 것이지만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면 신학대학원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형부는 졸업할 때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자정해서 시골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33년 목회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다. 교인들 대다수가 연세 든 노인들이어서 설교 수준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고 대화 상대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노인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섬기며 외로운 목회를 하셨다.

손가락 끝에 물도 안 묻히며 살 줄 알았던 언니는 형부의 건전한 생각에 마음이 끌려서 결혼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목사 사모가 되어 시골 아낙네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언니는 시간이 나면 큰 언니들이 사는 서울을 나를 이룰 하는 것이 작은 기쁨인 것 같았다. 시골에서 나서 성장한 아들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것이 언니 마음에는 힘들었다. 교단에서 들어준 소액의 은퇴자금 외에는 준비된 것이 하나 남이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요즘 말로 대책이 없는 목사 남편 때문에 언니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약도 오르고 화도 나는 것 같았다. 아직 5년 더 목회할 수 있는데도 형부는 젊은 후배들도 목회자가 없는데 본인만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해서 은퇴를 서둘렀다. 평생을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은퇴 후에도 매일 성경 연구하고 설교 작성한다고 언니에게 잔소리 듣던 형부는 은퇴 후 한 달 만에 교회에서 삼재 받은 몇 분하고 주말에 문을 닫는 카페에서 카페교회(?)를 시작하셨다.

세상 직장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 빨리 은퇴하고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남은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면 여생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았어도 삶의 무기력함, 무료함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면서 깔끔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특히 본인이 개척해서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나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부흥된 교회를 떠날 때는 아름다운 모습보다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보이기도 한다. 이해하자면 몸과 마음을 다해 오랜 시간을 섬기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쌓인 정, 또 목회의 결과로 이룬 성과를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바분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세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지도 모르겠다. 세습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아니 주기 아깝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과다.

많은 시간을 이룸도 없이 빛도 없이 젊음이 떠나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으니 그리스도인의 분을 보인 형부가 존경스럽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성예수"라는 별명을 얻은 형부가 존경스럽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화려한 은퇴식이 없어요, 그리고 보장된 은퇴자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을 확실히 들을 것인 형부가 존경스럽다. 말기신 분이 누구인지, 떠날 때가 언제인지 늘 주인되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 때문이다.

lpyun@apu.edu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Tel: (610)222-0691, 267-471-7777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Tel: (501)920-9049, Saeil: (501)425-5178	<b>앵커리지베를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Tel: (915)755-1490, Saeil: (915)751-4365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b>킬린노루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Tel: (254)634-8705(H), (254)501-4933(C)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Tel: (253)536-8675, (253)888-9249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목회서신

빛과 속음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 중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마5:13-16)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과 의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구원 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에 대한 지적이며, 잘 감당하길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1. 빛의 역할**  
빛에는 2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밝게 비춥니다. 주변과 사물

을 밝게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둘째는 드러나게 합니다. 빛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만드심(창1:3)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시27:1)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요1:4:8:12)이십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이 빛을 발하려면, 시커먼 죄로 먹칠된 우리 마음의 거울이 회개하므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엡5:8-9)의 삶의 열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비진리와 거짓 교훈의 혼돈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 밝은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엡6:12)을 몰아내고, 진리와 복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 소금의 역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소금에는 3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 모든 음식에 간하여 맛을 내게 합니다. 신 맛과 쓴 맛, 매운 맛과 단 맛 등 다른 맛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짠 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금은 곧 생명’입니다. 다른 영양분은 해당 영양분이 모자라도 생존엔 큰 지장이 없지만, 인체에 소금이 모자라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행군의 군인, 마라토너, 광부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소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썩는 것을 막아주는 부패방지 기능입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 오면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게 하는 것도 소금의 부패방지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금에는 2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은 묻혀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녹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부패방지와 맛을

내기 위하여 뿌려져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성도는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서, 자존심, 체면, 고집,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본성과 같음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고,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정의와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절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 빛과 속음**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셨지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단사설의 비진리와 거짓 교훈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화해자가 아닌 분쟁자, 불신자보다 더 심한 불의한 부정부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도가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흑자는 현대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이 아닌 ‘빛과 속음’으로 변질되었다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골13:8), 복음의 빛(롬1:14), 기도의 빛(삼상12:23) 등은 지기 않고, 세상 빛만 잔뜩 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파산이 되어, 이슬람의 사원(Mosque)과 불당(佛堂)으로 전락하는 실정이나 ‘빛’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장로, 권사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 받았던 귀한 신분이었지만, 작금에는 거짓말과 위선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남을 속이고 있어, 현대교회인 교회를 ‘소금’이 아닌 ‘속음’의 무리와 단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낮 뜨겁고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나성동산교회 기감 교단 탈퇴  
1월 29일 교인총회서 만장일치...담임 박영천 목사

후임 목회자 문제로 내홍을 겪어 왔던 나성동산교회가 결국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나성동산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교회 본당에서 교인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탈퇴하는 한편,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결의, 추대하고 독립교회로서의 새 출발을 선포했다. 이날 교인총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담임목사 선출을 둘러싼 내용을 종식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금년 교회 본연의 사명

인 선교를 제일 원칙으로 삼겠다는 개혁적 결의가 선포됐다. 교인총회에는 교회 재적 126명 가운데 102명(위임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영천 목사 담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 △나성동산교회 임원진 인준 등을 결의했다. 교인총회는 이날 발표한 ‘나성동산교회 선언문’을 통해 교단의 경쟁에서 벗어나 선교제일주의를 표방하겠다는 교회의 입장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와 선언은 LA지역 선

교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왔던 나성동산교회의 선교역량이 다시금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되어 교계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다. 특히 교인총회에는 1981년 나성동산교회를 설립한 한은우 원로목사가 참석해 교권다툼을 지양하고 선교제일주의를 선포하는 교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눈길을 모았다. 그동안 담임목사 임명을 기다리며, 유지재단 설립에 협조하고, 부담금납부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며, 연회에 협조적이었던 나성동산 교회관계자들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연회 행정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주연회 감독은 1월 31일까지 박 목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송

했고, 연회의 구 뉴욕 및 LA측 지도부가 작성한 합의서가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자행된 교단의 치리가 법과 원칙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됐기에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 측은 미주연회가 발송한 합의서에 담임목사 은퇴 시한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 재산을 연회에서 관리한다는 내용 때문에 크게 반발하기 시작 결국 교단 탈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나성동산교회의 이번 독립교회 선언은 교단정치보다는 선교가 우선한다는 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뉴욕교협 이사회, 36만1천불 예산 통과  
31대 전반기 정기이사회...후반기 사업 발표

뉴욕교협 31대 이사회 전반기 정기이사회가 2월 11일 오후 5시 삼원각에서 열렸다. 이사장 강영규 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된 회무처리를 통해 교협 43회기 예산 36만1천 달러를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교협의 신년하례예배 지원과 전반기 이사회를 마치고 후반기 사업인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 △교협 연합체육대회 지원 △할렐루야대회 적극 참여 및 지원 △후반기 이사회 △이사회 정기총회 등을 남겨두고 있다. 회무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김정길 전도사 인도로, 기도 이상호 이사(전임 이사장), 성경봉독 이해숙 이사(부이사장), 설교 김홍석 목사(교협 회장), 통성기도, 축도 김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무나진 다의의 장막을 일으키라”(잠9:11-1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US 에어웨이

스 42년 경력의 가장 체슬리 설렘 버거가 허드슨 강에 기적적 착륙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한 일화를 언급했다. 김 목사는 “그것은 배운 매뉴얼 대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큰 의미는 사제들의 전유물 같았던 예배를 회중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매뉴얼을 받은 우리는 찬송과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성기도시간에는 박용기 장로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윤호 장로가 뉴욕지역 5백여 한인교회와 동포사회를 위해, 손성대 장로가 교협과 이사회 부흥발전을 위해 기도를 마무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 26대 살로한인회 설날 한인잔치 성료  
1월 29일 교인총회서 만장일치...담임 박영천 목사

지난 1월 7일로 예정됐던 한인잔치가 갑자기 밀려나고 구정 설날로 연기돼 2월 4일 개최됐다. 제 26대 살로한인회가 주최한 새해 잔치는 임춘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젊은 해병대(영 머린)의 절도 있는 가수 입장으로 시작된 잔치는 국가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살로교협회장 박형우 목사의 기도와 확산선 전도사가 독창한 미국 국가와 한국의 국가 제창에 이어 살로 시장 Jennifer Roberts 그리고 많은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 2부에서는 예년과 같이 태권도 시범, 중국 전통 무용을 발표한 후 3부에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을 통해 2장의 한국 왕복 비행기표와 푸짐한 선물이 참석자들에게 배부됐다. 살로장로교회 여전도회와 청장년들은 각 교회의 지원을 받아 약



550명을 대접했으며 본 교회와 다목적 친교실인 체육관이 지역 한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사용됐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한편 살로장로교회는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에서 2명의 원로장로로 전기형, 전태현 장로를 추대하고, 장로장립 후보로 성경태, 진태형, 전승현, 전오현 집사를 선출하며, 권사추대 후보로 진재경, 박운주 집사를 2회의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했다. 장로장립 후보와 권사 추대후보 부부는 4주간에 걸친 임직 훈련을 받게 된다.  
(기사제공: 살로장로교회)

GnS Entertainment 이웃초청 열린음악회  
한류문화선교교회...3월 23일-4월4일 남가주 순회공연

GnS Entertainment(대표 조효성 목사)가 기획하는 이웃초청 열린음악회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남가주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조효성 목사는 “매해 봄철에는 한국에서와 해외 한인교회 그리고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문화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하지만 모든 행사들이 기존의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예전교회회의 문화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멈춰서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이웃초청 음악회는 비기독교인(Non Christian)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 기획한 GNS Entertainment 대표 조효성 목사는 “한류는 주님이 만드신 미션 로



드라는 사명적 선언으로 만든 한국 서초동에 위치한 일반 대중문화 회사입니다. 기존의 CCM 찬양 기획회사나 기독교 문화 단체가 아닌 일반 대중음악(K-pop, 트로트, 뮤지컬, 힙합, 퓨전국악...)과 배우, 연예인들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일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Go and Sing” 성령과 기도로 그리고 세상 연예인들과 비교해 두 뒤지지 않을 실력으로 준비된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노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한류의 선교지역으로 가서는 한류의 영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GNS Entertainment의 소망은 세상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주님이 만드신 미션 로 드인 한류를 통해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나눔의집, 재외한인구조단과 MOU체결  
노숙인 4명 귀국 희망...한국 정착 지원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재외한인구조단(총괄단장 권태길 목사)과 지난 10일, 나눔의집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재외한인구조단 뉴욕지부장 김영숙, 나눔의집 이사장 문석호 목사와 나눔의집 스태프 및 노숙인들이 함께 했다. 박성원 대표는 “재외한인구조단과 협력해서 나눔의집 노숙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나눔의 집에 있는 15명의 노숙인 중 4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외한인구조단 총괄단장 권태일 목사는 CBSN 뉴욕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실패 등 여러 이유로 현지에서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포함해 가정복지지원, 취업지원, 치료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일 목사는 ‘함께 하는 사랑밭’이라는 구제선교단체를 30년간

사역하고 있고 8년 전부터는 ‘월드쉐어’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돕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20곳의 재외한인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테말라, 중남미 등에서 현재까지 모두 280명의 재외한국인을 구조했다. 특히 강화에 ‘그린월드’라는 유기농 공동체를 통해 최초 3개월간은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70만원을 지원하며 초기 적응기간으로 적응을 돕고 있으며 6개월 후에는 취직 또는 가정 복지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CBSN합창단 음악감독 취임감사예배  
유진웅 교수...창단 2주년 기념 겸해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이하 CBSN) 합창단 창단 2주년을 기념하고 유진웅(제시유) 음악감독의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가 7일 오후 8시 뉴욕그레잇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코네티컷교협 총무 김광일 목사의 만찬기도 후 시작된 예배는 경배와 찬양 인도 김정길 전도사, 사회 이종명 목사, 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남후남 장로에 이어 뉴욕기독교방송 중창단(지휘 유진웅 반주 김보라)이 주님 나라 이루어소서 찬양했다. 합창에는 합창단과 함께 바이올린, 플루트와 팀파니의 연주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날 취임하는 유 교수가 음악학 과정을 밟고 있는 뉴욕칼빈신학교



원) 학장 윤요셉 목사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빌4:19) 제목으로 설교했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유진웅 교수에게 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음악감독 및 지휘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진웅 교수는 “찬양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합창단이 되길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문의: (516)477-0818, (718)414-4848  
(기사제공: CBSN)

한금송 테너 김영환, 인사말 및 위촉장 전달 유진웅 음악감독 문석진 목사, 축하연주 바이올린 김현우, 영상축사 김태수 뉴저지목사합창단 단장, 김중훈 뉴저지목사합창단 지휘), 이광희 목사, 영상축사 광상희 계관사신, 축사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권면 김상태 뉴욕목사회장, 특주 플루트 김하경, 축하무용 김은 안,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 모두 지원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www.cbsnnewyork.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516)477-0818, (718)414-4848  
(기사제공: CBSN)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종교개혁지 탐방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종교개혁지 탐방을 갖는다. 일정은 10월 2일(월)-12일(목) (10박11일), 장소는 유럽 4개국(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이며 경비는 1인당 2,500달러(교회협에 한해 2,000달러), 참가대상은 회원교회 목회자 부부 및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로 40명 선착순에 한한다. 계약금 350달러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646)772-5947(준비위원장 이창남 목사)

제 24기 뉴욕실버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제 24기 뉴욕실버선교학교 등록생을 모집한다. 28일(화)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며 과정 이수 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도 떠난다. 교육장소는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이며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917)963-9356, 559-2645

“리더십 스킬 NEW SAT 준비”

패밀리리더(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학업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스킬 NEW SAT 준비”가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대상은 9학년~11학년, 선착순 20명에 한한다. 수업은 10 SAT반, 3 테스트, 3 리더십 세미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지원되며 디파짓 400달러는 프로그램 수료시 전액 반환한다.
▲문의: (201)242-4422

어린양개척교회 교회당 이전

어린양개척교회(담임 류승례 목사)가 교회당을 이전하고 지난 5일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교회는 성전을 함께 사용하는 피어몬트리폼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는 오전 9시. 새 주소는 361 Ferdon Ave, Piremont, NY.
▲문의: (845)848-2013

종교개혁 500주년... “재충전과 회복을”
뉴욕목사회 후원을 위한 찬양대축제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를 후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찬양대축제”가 2월 12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찬양대축제는 뉴욕목사회합창단(단장 김준환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 뉴저지남성목사회합창단(단장 김태수 목사, 지휘 김준환 목사), 뉴욕장로성가단(지휘 이정진 장로), 효신교회 찬양대(지휘 양근식 장로), 프라미스교회 찬양대(지휘 이정진 장로)와 어린이합창단이 공연했다.

찬양대축제는 이다윗 목사와 이정진 장로가 이끄는 월드밀알 그룹이 주도했다. 경배와 찬양(인도 조성식), 핸드벨콰이어(지휘 최원희), 헌금 특주 유안나, 월드양상블 연주(악장 유안나), 소프라노 유경화, 월드밀알선교합창단(지휘 이다윗)이 찬양했다.

월드밀알 경배찬양을 시작으로 김중국 목사(뉴저지교협 회장)의

기도, 문석호 목사(부회장, 효신교회)의 환영사, 그리고 김승희 목사(증경회장)가 시편 150편을 낭송했다.

음악회를 맡으며 회장 김상태 목사가 인사했으며, 허걸 목사(증경회장)가 축도를 했다. 또 순성대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헌금기도를 했다.

회장 김상태 목사는 “이번 찬양대축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신하신 일들을 꾸무고, 재충전과 회복을 필요로 하는 뉴욕목사회원들을 후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인사했다.

45회기 뉴욕목사회는 성지순례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김상태 회장은 이번 찬양대제를 통해 2-3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KAPC 목사장로기도회 3년 만에 속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뉴저지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6:14)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미동부 지역에 있는 가든, 뉴욕, 뉴욕남, 뉴욕동, 뉴욕서, 뉴잉글랜드, 동남부, 수도,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등 11개 노회에서 참가했다. 3년 만에 속개된 목사장로기도회에는 55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뉴욕서노회가 호스트 노회로 준비했다. 준비위원장 이준호 목사(뉴욕서노회 노회장)는 “무엇보다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했다”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주제 성구처럼 목사와 장로들이 일심으로 십자가만 붙드는 심정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기도회를 정리했다.

강사는 김길성 전 총신대 교수, 고택원 총회장, 그리고 교단 원로들이 강사로 섰다. 이용걸, 전덕영, 강기봉 목사는 동부지역 노회 출신으로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일선 목회에서 은퇴해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눌 것이 많은 공로가 있다.

첫날 오후 5시 등록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 열린 개회예배는 박종운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서 기도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준호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예수님과 같은 Attitude를 가지라”(빌2: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창세전에 선택된 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 받은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등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엄청난 자존감과 당당



KAPC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일선 목회에서 은퇴해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눌 것이 많은 공로가 있다.

첫날 오후 5시 등록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 열린 개회예배는 박종운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서 기도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준호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예수님과 같은 Attitude를 가지라”(빌2: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창세전에 선택된 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 받은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등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엄청난 자존감과 당당

함이 생기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과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Attitude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7일 낮에는 이용걸 목사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며”(행20:17-38)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목회철학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낮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도

2017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에 정성진 목사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개혁의지, 평판, 설교 확증”

제 43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13일 2차 임실행위위원회를 열고 2017 할렐루야 북음화대회 강사로 정성진 목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목회자우명을 갖고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성진 목사는 담임목사 6년 임기제를 도입해 전교인에게 6년마다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은퇴, 원로목사제도 폐지, 목회자 보너스 폐지와 아울러

장로 6년 단임임기제, 자치기관 대표 당회원 임명, 사례금 없는 지휘자, 반주자 봉사를 시행하고, 부교역자들을 중심으로 4개 교회개혁 분립을 한 바 있다.

김홍석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강사로 첫째로 개혁의지, 둘째 평판, 셋째 설교, 넷째 재정을 염두에 두었는데 3가지가 모두 충족된 강사”라며 “재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할렐루야대회는 7월 7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10일(월) 목회자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날 교협은 떡국으로 무료 신년



뉴욕교협 임실행위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례찬을 진행하고 14만277달러의 수입을 남겼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7일 1차 지역자치행정위 모임에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참석해 고무적이라고 보고했다.

감사보고는 김기호 목사가 재정 보고는 이광모 장로가 보고했다.

1/4분기 재정은 수입 72,454.32달러, 지출 65,703.71달러이며 총잔액은 전년 이월금 포함 33,685.89달러로 보고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설교 김요셉 목사, 통성기도 이만호 목사, 광고 임병남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모독받는 하나님”(롬2: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적, 본질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하고, 본질로 돌아가

하고 율례를 통하여 진교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전덕영 목사가 “나를 보 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요 8:29)라는 제목으로 후배 목사들에게 지난 목회를 통해 느끼고 행하고 또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경계를 나누면서, 양떼의 주인도 아니데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양털을 벗기고 양을 잡아먹으며 내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경고했다.

이어서 노회와 교회와 개인을 위해 임동렬 목사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다.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김길성 교수(총신대학원)가 “모세처럼”(히 11:24-26)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해 하나님 앞에 내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도전했고, 셋째 날 새벽에는 “진실한 고백”(딤후4:9-18)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개혁주의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도전했다.

8일 오전 10시30분 조성훈 목사(가든노회)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맡은 강기봉 목사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시 138:1-5)라는 제목으로 “자질교 어 지러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며, “고난이라는 단어가 힘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목사장로기도회는 뉴잉글랜드노회가 호스트 한다.

(정라: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후원의 밤에서 핸드벨 콰이어가 연주하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reg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New York Baptist Church, etc. Sub-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in Hawaii and North America.



기쁜우리교회 창립예배에 순서를 맡은 김한요 목사, 김경진 목사, 강준민 목사

### 갈릴리선교교회,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 '행복한 신앙생활' 주제, 강사 최영기 목사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천영 목사)는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를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최영기 목사(전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국제가정교회사역원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에서 '염려 없이 사는 비결'(마:24-34)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최영기 목사는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마음이 부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염려가 피어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울러부쳐라. △셋째, 나는 하늘나라를 우선하는가 일상생활을 우선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가 오지 않으며 염려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넷째, 나는 오늘을 염려하는가 내일을 염려하는가? 예수님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다.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야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하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다. 그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정성 다해 섬기라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염려근심에 대한 4가지 자기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나의 주인은 누가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치루는 대가가 염려근심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 △둘

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 하는가 불신하는가?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이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다. 기도로 요청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나만 없으려 할 수 있다는 철없는 생각이다. 기도를 결심하라. 염려가 피어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울러부쳐라. △셋째, 나는 하늘나라를 우선하는가 일상생활을 우선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가 오지 않으며 염려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넷째, 나는 오늘을 염려하는가 내일을 염려하는가? 예수님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다.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야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하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다. 그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정성 다해 섬기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게 게시판

#### YWCA 무료 유방암 검진

YWCA 무료 유방암 검진이 17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감사한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실시한다. 자격은 4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보험이 없거나 높은 deductible를 갖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YWCA Grace Kim (714)871-4488

#### 미주장애인사역 세미나

국제장애인교회학교협회가 주최하는 미주장애인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세미나가 오는 3월 24(금)일과 26일(토), 가디나 지역에 위치한 원패밀리교회(담임 장경일 목사, 19208 S. Vermont Ave)에서 열린다. 장애인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 교사, 부모,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앙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실천방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된다.

▲문의: (310)350-1384

#### 샌디에고 KUMC 전교인 영성집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6701 convoy ct)가 오는 24일(금)부터 26일(주)까지 전교인 영성집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저녁 7시30분, 25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6일(주) 주일예배 시간이다. 강사는 이성호 목사.

▲문의: (858)279-9191

####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UMPC)가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주소서'라는 주제로 3월 17일(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은혜한인교회(2층)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315-4617

#### 컴패션데이

컴패션인터네셔널은 컴패션데이 행사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남쪽주차장에서 갖는다. 일정은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금, 토, 월요일은 오전 11시-오후 7시, 주일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지역사회에는 CompassionExperience.com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문의: (888)503-4590

####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방회 Britt Lectures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방회(지방회장 한세희 목사)는 Britt Lectures를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First UMC에서 열린다. 강사는 로이드 알렌 박사(Mercer University's James and Carolyn McAfee School of Theology in Atlanta)이며 일정은 17-19일은 저녁 7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문의: (808) 536-1864



미주아버지학교 관계자들

이명철 사무국장은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주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아버지학교 출신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 리소스가 모자라면 이를 토대로 선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학교는 2월과 3월 두 차례 무료 텍스트보고 세미나를 실시한다. 일시는 2월 25일과 3월 18일이며 강사는 주현호 회계사. 또한 가을에는 이민법 변호사인 서우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무료법률서비스를 갖는다고. (박준호 기자)

### 기쁜우리교회 설립예배 1천명 참석 1천200석 규모...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되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예배에 1천여 명이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글렌데일(333 Colorado St)에 새로 마련한 교회에서 드린 설립예배는 김경진 목사 사모로 김민철 목사가 대 표기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다. 꿈은 나이를 초월하며 꿈을 꾸면 현실보다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복음을 증거 하는 교회다. 사랑은 아름답다. 그리고 용서는 더욱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원동석 장로의 경과 보고, 그리고 김윤성 장로를 통해 김경진 목사에게 위임패를 증정하고, 남성4중창의 특송,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의 권면과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쁜우리교회는 한인 타운 중심부에서 약 7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천200석 규모로 지어졌다. 예배 시간은 1부 아침 7시30분, 2부는 9시, 3부는 11시에 각각 드리고 있다.

▲문의: (818)662-0400

(정리: 박준호 기자)

### KAC, 지역주민과 경찰에 감사 전해 LAPD, 한인노인 폭행범 체포에 빠른 대처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방준영)는 지난 2월 1일 83세 한인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빠르게 처리한 코리타운 지역 주민들과 로스앤젤레스 올림피지역 경찰국(LAPD)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911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우리의 파트너 올림피지역의 LAPD뿐만 아니라 폭행범을 쫓아내고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목격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KAC는 이번 사건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뤄진 이후 불안해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으며 한인사회는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퍼지자 분노를 표출했다고 언급했다.

방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본 폭행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지역 경찰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정의를 요청했다. 우리 사회가 연장



막무가내 피습을 당한 한인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길에 주저앉아 있다. 린다 이지 페이스북

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KAC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갈릴리선교교회에서 열린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에서 최영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미주아버지학교 신임 구정훈 본부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스페니시권 확장

미주아버지학교(본부장 구정훈) 관계자들이 10일 정오 만리장성 식당에서 교계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구정훈 본부장 취임 후 갖는 첫 번째 기자들과의 만남으로, 구 본부장은 아버지학교 28기 수료생으로 2005년부터 아버지학교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으며 봉사해오며 2016년부터는 먼저자 직분을 맡고 있다.

구 본부장은 불리비아 이민자 출신으로 영어와 스페니시가 가능해

아버지학교 사역이 영어권을 넘어 스페니시권까지 지경을 넓혀 가는 데 적임자로 본부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미주아버지학교는 오는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에 위치한 탬피칸인장로교회(담임 양성일 목사)에서 킥오프미팅을 겸한 미주아버지학교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2017년 아버지학교의 전체 스케줄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3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www.youngnak.com Tel: (323)388-7101, (F) (213)388-8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mc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성찬양예배: 오전 5:30 영성예배: 오후 6:30 EM, 대가족: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등둔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영성)예배: 오후 12:30 EM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a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필리핀어예배: 오후 1:20 영양회 (왕소, KDC, 킹덤델리버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필리핀어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박스 경환),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성)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새벽: 오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c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말학교: 오후 2: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11: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임예배: 오후 1:30(수요):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학교: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해(818)98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East, L.A., CA 90006	<b>얼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8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b>월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미대: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새벽기도: 365일 24시간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움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4부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14)749-4500, Fax: (714)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rimer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토) 집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live.com / e-mail: pastor@aco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연회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토) 집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게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 “동성애 비판한 교사탄압 중단하라”

### 차학연 등 27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학부모 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

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단체는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게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교사와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대

산되면 그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학부모 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 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권기본조례 위력 발휘” 우려

### 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인권침해라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동성애자 차별금지 교육이 진행된다. 일부 공무원이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말했다가 최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를 찾았다. 이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서울시의 어느 과로 가든 (동성애 단체 법인등록이)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5년 동성애자 대신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31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두 가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첫째,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발언한 공무원에게 인권담당관이 추천하는 강사를 붙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둘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인식은 한번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통제방안을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에서 결정을 했다”면서 “앞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교육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는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다. 조례는 제6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에 명시된 성적지향, 즉 동성애 문화를 보호·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인권담당관’을 설치했으며, 행정의 전

문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11월 ‘인권위원회’도 만들었다. 2013년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했으며, 2016년에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권곤퍼너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 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2012년 1억원이었던 서울시 인권관련 예산은 2016년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실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니 차별금지법인 인권기본조례가 더 이상 동성애 독재문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의원을 통해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무소)도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는 표현이 인권침해라면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인권탄압에 해당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인권침해로 낙인찍고 시정권고를 남발한다면 서울시 공무원 대다수는 동성애자의 부당한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고 센터에 입학했는데, 지난해만 3만6044명이 입학했다.

신천지의 2016년 말 신도수는 17만2775명으로 14만명의 성도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보다 덩치가 컸다. 980개 교회, 2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된 연합합신보다 훨씬 많은 신도를 신천지가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은 208명, 신천지 신도 교육과 위장교회 담임을 맡은 강사는 599명, 교역자는 1만8055명이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지난해 신천지 센터 등록자가 3만6000여명이었다는 말은 그전 단계인 복음방 공부를 마친 사람이 7만명 이상이며, 미혹 작업에 착수한 포교 대상자가 수십만 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가 매년 3만6000명 이상의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에게 이단교리를 성공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역 교회가 연합해 센터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예방 팸플릿·포스터 보급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북한인권단체, 김정은 반인륜범죄 ICC에 고발

### “장성택 사건으로 1천명 처형·2만명 숙청”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와 NK위치,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은 오는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김정은의 ‘장성택’ 관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학살 및 반(反)인륜

범죄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전략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탈북한 태영호 공사를 비롯 6인의 고위 탈북자의 증언 진술서와 장성택 관련자로 처형된

북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현금수탈은 특색개인이거나 일부조직이 벌이는 강요행위가 아니라,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일이다. 북한은 이런 약탈시스템을 통해 미성년 노동력 착취를 고착화하고 현금화하는 기형적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현대판 노예제도’ 돌격대

탈북민 구술단체인 갈렙선교회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등은 8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가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급 학교와 돌격대

## 7세부터 지고 메고 나르고…北 10대들 강제노역 신음 유엔아동권리위 의제된 北 아동·청소년 노동착취 실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각급 학교와 행정관료, 교사 등을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에 동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된다. 또 정기적으로 폐지와 폐철 폐고무 퇴비 등을 수집해야 한다. 학교가 ‘경제과제’라는 이름으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은 무조건 다 해야 하는 셈이다.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북한의 각급 학교는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신 현금을 강요한다. 어릴 때부터 아무런 합목적성 없이 자신의 노동력과 집안의 경제력을 빼앗아가는 약탈경제가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17세 청소년들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전문 건설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한다. 돌격대 없이 이뤄지는 북한 내 건설은 거의 없을 정도다. 김 목사는 “연인원 20만-40만명으로 추정되는 돌격대는 출신성분과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며 “각종 건설사업에 동원되면서도 인건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했다.

#### 유엔 “북한은 총체적 인권말살 국가”

북한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노동을 요구한다. 7-13세 아동들은 모두 조선소년단 가입을 통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또 14-30세 청소년과 청년

피해자의 사적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이를 토대로 ICC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이 처형이나 고문, 추방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척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으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조직도 노동력을 헌납해야 한다. 이는 유엔 사회권 제6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유린이라는 게 인권단체와 유엔의 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북한인권 상황의 엄중함이 규모, 인권유린을 분석했을 때 “동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인권유린 사례로는 아동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국인 남성의 결혼이나 섹스산업 위한 북한소녀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인신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 등을 꼽을 수 있다.

## 7세부터 지고 메고 나르고…北 10대들 강제노역 신음 유엔아동권리위 의제된 北 아동·청소년 노동착취 실태

이번에도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북한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기독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지난 3년 연속 공식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북한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 관행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특히 출신성분이 나쁘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 北, 미성년 강제노동 폐지 강변

북한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아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 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북한도 당사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청소년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는 회의로 따로 진행된다.

유엔은 이를 기초로 당사국이 답변할 수 있는 사건 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국내 및 국제 교계, 시민단체들은 오는 9월 사건목록 공개에 앞서 추가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당사국 관계자와 유엔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건으로 제기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주고받게 된다.

## “한국에서 부는 성령바람이 세계로”

### 세성협 제29대 이수형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9대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2월 12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수형 목사는 취임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 부족한 종에게 큰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앞서가신 분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셨기에, 선배목사님들이 행하신 일들 뒤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세성협을 통해서 한국에서 부는 성령바람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오범열 목사 사회로 이은

대 목사의 기도, 손학봉 목사의 취지문 낭독, 공동회장 손광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중경대표회장 장향희 목사가 “사명과 능력”(출 4: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향희 목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 없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어 쓰신다.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하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성협 제29대 이수형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순서말은 아들이 기념촬영 했다.

## 신천지, 매년 3만명 이상 성도들 미혹

###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보고서

인천 원주 대구 지역의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지난해 가장 공격적으로 포교에 나서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만명 이상이 신천지에 미혹돼 집중교육을 받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이단교리를 받아들여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13일 발표한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최근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천지 지파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인천지역(마태지파)으로 14.7%였다.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충북지역 교회를 괴롭히는 빌립지파는 11.1%,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포교의 손길을 뻗친 다대오 지파는 10.7%였다.

이들 3개 지역은 4년 연속 10% 이상 성장세를 보여 지역교회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시켰다. 2년 전 40%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부산·마산·진주지역 정통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야교보지파는 지난해 9.5% 성장했다.

그러나 신천지 12개 지파의 평균 성장세는 2013년 19.3%에서 2014년 16%, 2015년 13.5%, 2016년 6.9%로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은 “신천지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온라인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있는 바로알자신천지(antiscj.net), 구리이단상담소(antiscj.or.kr),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jesus114.net)와 국민일보, CBS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천지에 끌려가 정식 교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21만2006명이었으며, 이 중 신천지의 교리를 수용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11만3136명(53.3%)이었다.

6년 연속 매년 3만명 이상의 정통교회 성도들이 복음방 교육을 마

치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야교보지파는 지난해 9.5% 성장했다. 그러나 신천지 12개 지파의 평균 성장세는 2013년 19.3%에서 2014년 16%, 2015년 13.5%, 2016년 6.9%로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은 “신천지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온라인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있는 바로알자신천지(antiscj.net), 구리이단상담소(antiscj.or.kr),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jesus114.net)와 국민일보, CBS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천지에 끌려가 정식 교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21만2006명이었으며, 이 중 신천지의 교리를 수용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11만3136명(53.3%)이었다. 6년 연속 매년 3만명 이상의 정통교회 성도들이 복음방 교육을 마

## 기독교교육 위기... “신앙지도 우선”

### 예장합동 ‘2017총회학원선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학원선교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김경원 목사)에서 ‘2017 총회학원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개혁주의 기독교 대안학교운동”을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지난달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독교 동아리 설립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중 70%는 영유아부서가 없고, 50%가 교육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독교

교육이 위기에 있는 만큼 개혁주의에 근거한 신앙지도를 우선순위에 뒤편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정기원(밀알두레학교) 김신아(우리기독교학교) 김용업(서울기독교학교) 교장, 차영희 기독교 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녀양육’ ‘기독교대안교육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예장합동 학선위는 14일 광주 양림교회(정태영 목사), 20일 대구 나눔과섬김의교회(김종우 목사), 23일 부산 해운대제일교회(심옥섭 목사)에서 선교대회를 이어간다.

## ‘성경66권 강의 콘텐츠’

### 한국교회에 무료 제공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이사장 림형천 목사)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바르게 배우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성경 66권의 강의 콘텐츠를 한국교회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미디어선교회는 1983년 고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교계 인사와 현 사무총장인 김병삼 장로가 설립한 단체다. 현재 전국 18개 지역 예배에 참여하는 ‘선교회의 성경강의’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한국교회 영적 성숙을 위해 모든 동영상을 무료로 각 선교단체와 교회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양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김삼복 이성희 이영훈 이동원 장경동 목사 등 국내 신학자 및 목회자 50인을 강사로 초빙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강해 동영상 213편을 녹화해 BAC 성경공부 전 과정을 제작했다. 특히 한 목사의 ‘기독교란 무엇인가’란 저서는 5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에서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병삼 장로는 “선교회의 성경강의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한국교회 영적 성숙을 위해 모든 동영상을 무료로 각 선교단체와 교회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이에 빠져들고 있어 바른 성경관 정립이 시급하다. 이 콘텐츠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교회는 성경 66권 성경강의 콘텐츠를 휴대폰을 통해 어디서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또 성경바르게 배우기 실천운동 100만 회원을 모집해 이 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

다. BAC총장 임석순(한국중앙교회)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무료회원모집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회를 통해 어디서나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mission 선교의 창 (72)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근검절약(勤儉節約)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두가 평등하며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셨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러한가? 부가 힘 있는 소수에게 치우침으로 이 땅에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5천9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매일 16만 명에 해당된다. 이중 기아로 사망한 자는 연간 1,800만 명이다. 매일 약 5만 명이 굶어 죽어간다.

worldometers.info/kr에 의하면 현재 기

리고 있다.

왜 이렇게 버리는가? 만의 하나 조금 오래된 식품을 누군가가 사서 먹고 병이 들었다고 치자. 그때 들어올 소송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므로 가장 쉬운 방법은 골치 아픈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 근검절약의 효과

식품 낭비의 주범은 어디일까? 식품의 생산이나 유통 마켓이 아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주범은 식탁에 남겨진 음식물이다. 사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람들은 필요이상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버린다.

이 먹을 수 있고 한 수저를 모으면 125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반찬도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고 남기지 말라. 남기면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셋째, 물을 적당히 써라. 세수할 때는 대야의 70%만 떠서 사용하고, 설거지나 샤워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비누를 사용할 때는 남자는 두 번만, 여자는 세 번만 문지르라고 한다. 치약은 3mm, 튜브의 입구가 큰 것은 2mm만 사용하라는 실천항목도 있다.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지만 이런 근검절약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키워낸 밑바탕이 되었

사치와 낭비는 악이고 근검절약은 선이다.

주기도문에는 개체가 아닌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인이 음식을 한 숟가락씩만 모아도 7천만 명을 먹일 수 있다.

아 가운데 있는 자는 7억5천만 명이다. 이에 반해 세계의 과체중인 사람은 16억3천만이며 비만인 사람은 6억7천만이다. 이를 합산하면 약 23억 정도이다. 이는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의 3배에 해당한다. 누군가는 너무 먹어 문제가 되고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된다.

이 지구촌에서 10명도 아니고 매일 5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침묵하고 있다. 정권자도, 언론도, 교회도 잠잠하다. 아예 아픔도 없다. 인류에는 커녕 집단 이기주의적 경쟁만 치열하다. 함께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교회와 민족을 초월한 글로벌한 건설과 사랑의 실천은 요원하던 말인가?

### 식품 낭비의 실태

경향신문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식량생산의 3분의1인 13억 톤의 음식물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등 세계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매년 한 명의 소비자가 95-115킬로그램의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에서 매년 400만개의 사과, 120여만의 개소시지, 토마토는 280만 여개가 멸절된 상태인데도 버려지고 있다. 영국이 이 정도이면 미국은 어떠할까? 상상이 안 된다.

수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팔 상품이 조금만 상하면 통째로 버린다. 뿐만 아니라 못생긴 식품(Ugly food)도 다량 버려진다. 그런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유통기회에 따른 이유 때문에 약 40%의 식품이 개봉도 하기 전에 버려

The Science times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일단 식탁에 올랐다가 버려지는 쓰레기는 40%에 달한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의 비교적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연간 대략 3,000만 톤의 식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쓰레기의 12%에 이르는 분량이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버려진 식품의 5%만 수거해도 하루에 4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그라지아노 실바(José Graziano da Silva) FAO 소장은 "우리가 음식 낭비를 줄이면 20억 명을 구제할 수 있는 음식이 생길다"라고 말한다. 선진국에서 버리는 식품이면 후진국의 식량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무튼 식품을 마구 버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식품낭비는 그냥 방치돼왔다. 식품을 절약하면 어려운 이웃도 살리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된 음식들은 독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는데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기도 한다.

### 가나안 농군학교의 근검절약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호미를!'이란 모토로 각계각층의 교육생들을 일깨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 시대 근검절약의 한 모델이다. 그 실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밥을 먹을 때는 한 알의 밥풀도 버리지 말라. 밥 한 그릇 쌀 5,000알, 한 수저 250알이다. 김평일 교장은 "5천만 한국인이 식사 한 끼에 쌀을 한 톨씩만 모으면 1만 명

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맺음 말

"절약은 제1의 수익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물질 만능 시대에 식품낭비는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인보다 한인과 중국인의 소비심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접시에 남겨진 음식을 끝까지 다 먹으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나? 쌀 한 톨, 물 한 방울은 미미하다. 그러나 5천 만 명이 참여하고 세계 교회가 동참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일뿐이라도 아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를 살피야 한다.

크리스천은 검약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이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러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오전 명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두었다. 나 먹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돕는 단 말인가? 그것은 부자들의 과업이지? 아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귀천이 따로 없다. 가진 자는 많이 할 것이요 없는 자는 조금 하면 된다.

사실 풍족하게 살아온 자들은 배고픈 사람의 한을 모른다. 그래서 독일시인 괴테(L. V. Goethe)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느냐"고 말했다. 근검절약! 베풀 줄 아는 사람은 \$1을 아껴도 멋있다.

jsong007@hanmail.net

## 선교 편지

###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신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달 초, 기도편지를 쓸 때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

역의 연합예배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복음전파와 제자양육,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왔는데...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니고, 당일 오전에 전화를 주시더니! 감옥과 양로원 사역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신앙고백을 하고 예배와 170여 명의 성도들에게 8명의 주의 종이 축도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2) "쇼&빌라라고 샷(소금과 빛) 개혁교회"의 동역자와 봉사자들을 한국음식으로 격려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와 성경공부 교사: 피테르, 로베르트

토요학교 교사: 원선미 선생,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지니, 다니

전도사: 임레&일디코 부부/악기(합주) 교사: 신희선 선생

급식 봉사자: 클라라, 주저(산도르와 여니는 병으로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3)방판길에서나, 집시 슬럼가, 집시 공영주택에서 영육간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요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사역할 때입니다.

(14면으로 계속)

24:45)으로 살았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탄, 감동,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사진 참조).

1) "남부역 거리교회"(1/17일, 화) 사역 후, "뢰바녀이 개혁교회"(안드라쉬 목사님 사무)에 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부다페스트 10구

www.rptse.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 학 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선교 펴기

멕시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의 시작부터 몹시 바쁘습니다.

▶새해에 먼 알래스카와 한국에서 선교팀이 연이어 멕시코에 와서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알래스카 선교팀은 도착한 당일 176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티화나의 커다란 양로원을 방문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이어서 로사리토의 판자촌을 방문하여 여기에 서도 음식과 과자들을 나누어 주

리 만들어 간 생필품(화장지, 비누, 치약과 칫솔)들을 나누어 주며 복음과 함께 작은 사랑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옹고 교도소 사역을 마치고 점심도 못 먹고 구불구불한 150Km의 산길을 달려 엔세나다에 도착하여 매우 추운 지역인 오호스네그로스에서 사역하는 오스카 목사님을 만나 담요 5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비가 와서 아주 질퍽거리는 청계천 교회로 가서 동네 미니초등학교에서 온 아이들



였습니다. 둘째 날은 숙소인 로사리토에서 멀리 100Km를 달려 옹고 교도소로 가서 까다로운 여러 절차와 양 팔에 많은 고무인을 찍어 가며 10여개의 철문을 통과하여 교도소 내 교회에 도착하여 준비해간 음식재료들로 포르타를 만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20년 이상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아주 실력 발휘를 하였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선교팀에서 준비해 온 울동도 하며 재소자들과 함께 합창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재소자들에게 포르타를 나누어 주고, 또 미

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담요를 나누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네 미니초등학교도 방문해보고 동네 불났던 집들도 방문해보면 좋겠지만 비도 오고 길도 너무 안 좋아 이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동네 150여 명이 공부하는 작은 초등학교로 가서 선교팀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봉투에서 준비해 준 과자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팀에서 알래스카 배경의 멋진 그림엽서들도 수 백 장을 사서 뒷면에 요한복음 3:16을 스페인어로 써와서 재소자들을 비

롯하여 곳곳에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0명의 선교팀은 티화나 교도소에서 공연을 했는데 긴 시간을 다양한 춤으로 한류문화를 다양하게 잘 표현해서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선교팀 일정 중에 비도 내리고, 멕시코에서 휘발유 값이 갑자기 20%나 인상되어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의 지역들에서 데모까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흥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선교팀 일정에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차 이야기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Freeway(고속도로)에서 다른 차가 제 차를 너무 세게 받는 바람에 폐차되었습니다. 제 차가 장장 325,000마일 이었습니다. Km로는 520,000 Km... 2010년 2월 황예행 선교사님께서 2004년도 96,500마일 때 사주셨었습니다. 2015년 12월 Freeway(고속도로)에서 갑자기 Transmission이 나가서 큰 돈 들여 고친 일은 있지만 그동안 7년여 정말 잘 타았습니다. 멕시코의 구불구불한 산길들과 비포장 도로 등 정말 잘 달려주었습니다. 일본 T사의 S로 일본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차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다시 2008년도 10만 마일이 넘는 같은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정신없이 바쁠 때 차가 이렇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LA의 Kim's Auto Body Shop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티화나의 옛 청계천 같은 지역에 건축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  
△이 교회에서 어린이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  
△안경 선교팀 등 계속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팀들의 방문에 감사.  
△영화 상영 / 교도소 방문 / 달동네 & 청계천 지역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창단 조직을 원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게 하소서. 이 일이 잘 진행되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선교팀의 방문도 이어지게 하소서.  
최재민 선교사 드림  
이메일

특고시

어머님의 향기

-고 조정자 사모를 추모하며



전정구 목사

따스한 봄별이  
그리운 계절에  
홀연히  
떠나가신  
어머님의 향기가  
불현듯 그림다  
  
울렁 울렁대며  
아지랑이 사이사이  
그 아슬아슬한 사이  
  
흐드러지며 피어나는  
자목련의 향기가  
그리운 계절에  
쓰디 쓴 아픔의 한 가운데  
언제나 웃음꽃을  
잃지 않던  
어머님의 향기가  
더욱 더 그림다  
  
차가운 바람이  
메마른 얼굴을  
사정없이 두들기는  
이 삭막한 계절이

물러가면  
  
지금은 빼앗긴  
그리운 고향의  
이 언덕 저 언덕에  
복사꽃 향기  
흐드러지는 계절이  
반드시 오고야 말텐데  
  
그 삭막한  
고통의 계절에도  
쓰디 쓴 아픔을 속으로  
안으로만  
삭이고  
  
사랑으로  
인내로  
한없이 감싸시다  
머나 먼 나라로  
홀연히 떠나가신  
어머님의 향기가  
못내 그림다

covenantjeon@yahoo.com

<13면에서 계속>  
"회취 슬람가"를 심방할 때도, "살라쉬 공영주택가"에도. 공간이 좁아 서서 심방예배를 드려도...! 특히 방학이나 공휴일, 주말에는 그들에게 섬길 기회를 줘서, 나중에 주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너는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려"(딤후3:14).  
  
4)중고등학생 사역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졸탄(16살)"과 "마르크(14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장 열심이었던 "헤니(14살)"와 "비키(13살)" 자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읍대를 나온 신학선 선생이 피아노 등 악기 합주반을 섬기고 있

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  
  
5)네덜란드 선교사(미쉬)가 벨기에 학생들(엘렌, 겐시)을 "거리의 교회"에 데려와 함께 섬겼습니다. 비록 후미진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충성된 자들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월: "허타르 거리교회"(요즘 거리 공사로 다리 밑에서 못하고, 그 옆에 빈 공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화: "남부역 거리교회"(지난 수요일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노숙자들을 역에서 다 흠했습니다)  
주일: "쇼&빌라고샤그(소금과

빛)개혁교회" 예배와 급식사역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6)37년만의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독감과 폐렴으로 입원하여 병원 심방도 하였는데, 저희도 걸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입춘이라고 합니다. 새들의 지저귐에서 벌써 "새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감사, 감사,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허기리 흥부선교사  
김홍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축복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찬힐링센터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7)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1)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 석좌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그리고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차별 혹은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익히 알다시피 한 성을 다른 한 성보다 특히 남성을 여성 보다 우월시하고 그에 따라 여성들을 차등적으로 처우하는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 사회적 의식 및 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성차별(Discrimination against women)"으로 통칭됩니다. 이러한 여성차별 의식 및 실행은 특히 그 사회적 영역에서는 비단 남성에게만 있고 남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지 않는데 그 목적으로, 소위 여성해방과 성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즉 근본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물론 페미니즘 사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격한 주장을 제외한다면-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페미니즘이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특히 1960-70년대에 들어 그 사회적 역할을 더욱 창궐시켜 왔으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차지한다면, 최소한 "여성 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것만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다는 진리가 이러한 의식과 실천의 기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영역에서든(교회 내 사역의 자리들을 포함해서) 여성이 차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한인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 함께,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제도적 불의를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해서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사회 및 한인교회의 경우에는, 한국적 유교 전통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온 탓에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보다 뚜렷이 그 일상적 및 구조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세상을 향해 여성차별 이슈에 대해 비평 사회학적으로 관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여성차별이

##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적 진리로 분석 해석해서 여성차별 사회에 적극 대응 사회적 제도적 불의 침묵 말고 남녀 평등한 사회 되도록 선도적 기능해야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 및 실행을 하는 사회에서 교육받고 영향 받은 탓에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들을 차별하는 의식을 가져왔고 또한 그리 실행해왔습니다. 비교적 여권신장이 이루어진 나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도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를 표방해 온 여성차별적인 사회이며, 이에 역사적으로 여성의 영역과 역할과 권리를 제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서구 근대시민혁명의 결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이라는 근대 인권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계층에 상관없이 투표권, 참정권, 재산권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러한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위해 투쟁한 바로 그 시민혁명의 발생지인 프랑스에서는 194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도 192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밭 밟고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1920년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여성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투표권이 확보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여성의 권리 확장, 성차별적인 대우 타파,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예측과 모습

서 각계각층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성의 영역과 역할 및 권리 등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현대에는 사회 내 여성의 영역 및 역할이 확장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육아 문제로 인한 사회 경력의 공백, 한정적 역할(단체 내 주요 역할에서의 소외 포함), 승진의 한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새로운 성차별 관련 이슈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여성차별에 대한 비평 사회학적 관여를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와 우리 한인들이 사회 내 실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영역, 역할, 기회, 권리가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양성간 상호평등의 의식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도록 돕는 일이며, 특히 우리의 신앙공동체인 한인교회 안에서의 양성간 상호 평등 의식과 구체적 실천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대하며,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영역, 역할, 기회,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식과 실천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

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왜곡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진리를 가지고 분석 및 해석해서 여전히 여성차별이 성행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의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인간사회의 모습을 일구어 가는 선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선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한인교회가 먼저 여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사회를 선도할 만큼의 모범적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만큼의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이 그렇기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성차별의 모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파악해낸 여성차별의 모습은 바르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이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갈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구체적 실천이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에서 발견되는 여성차별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옳지 못한 여성차별 의식과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매일가정예배

jameshur63@hotmail.com

## 월 이에 하인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삼하10:1-4)

본문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는 가운데 다윗이 2차로 압몬과 아람 동맹군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려울 때 압몬지역에 갔는데 오히려 나야스 왕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 죽자 그 왕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갚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객을 보내어서 은혜를 갚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압몬 자손의 방백들은 오히려 조객들에게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이 좋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논은 다윗왕의 조객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신복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좋은 일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 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삼하10:5-6)

우리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하논왕은 다윗왕의 조객들을 잘 맞으려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늘 진실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귀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하5장에 보면 나야만 장군은

하인인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소개하고 자신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보기를 권면함으로써 문둥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쁜 사람들은 계속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주변4개국에서 군대3만3천명을 고용해 다윗왕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논은 못된 부하들과 함께 함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 수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삼하10:7-8)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지만 배반자는 용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하에 다윗은 부끄러워하는 신복들에게 "너희는 수업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머물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특

별부대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에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마 10:2-33). 아멘!

## 목 이스라엘의 뺨 자 중에서 또 빼서(삼하10:9)

본문은 연합해 공격해오는 압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치루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압몬은 주변국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성문여기 앞뒤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포위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몬자손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을 보고 즉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오히려 뒷걸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앞의 수많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항상 낙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 금 압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돌고(삼하10:10-11)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요압은 빼고 빼낸 군사들을 아람 사람 앞에서 진치게 하고 그 남은 무리는 압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서 아람 군을 매워서 싸움에 승리할 작전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협력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갈라진 틈으로 들

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되지 못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앞에 나가 싸우는 선발대가 있고 뒤에서 밀려오는 후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분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고 뒤에서 후원하는 분은 기도하고 위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 토 너는 담대하라(삼하10:12)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압은 서로 협력해 싸우는 계획을 세운 후에 "너는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소수의 부대였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

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 왜 싸우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성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2643-8554~5, Fax. 2648-4662 군포시 김장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철야예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15 Tel. (02)2-2646-319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2-3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8: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990-990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문호동 416-(404-270)	<b>승중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옥련동 172 (291-375)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사택: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대부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k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9-1 (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동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평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3)

### 스위스 취리히...제 3의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쾰빙글리를 찾아

급변 3차 학습여행은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로 오고 가는 가운데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윌리 발행인), 안정삼 박사와 조교숙 목사(의정부 은평교회)의 종교개혁관련 강의는 종교개혁지 탐방에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사들의 설명과 실제로 칼빈이 활약했던 흔적들을 되짚어 보는 모든 여행자들은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목숨을 건 개혁자들의 헌신이 있었건만 어쩌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즈음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음을 느끼기에 다시금 개혁의 불길에 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하며 제네바를 거쳐 취리히에 도착했다.

쾰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빈스터 성당

취리히에 도착해 먼저 그로스빈스터 성당을 둘러봤다. 이 성당은 울리히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년 1월 1일-1531년 10월 11일)가 목회하며 종교개혁을 외쳤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성당을 일명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당'이라고 부른다고.

그로스빈스터 성당은 취리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소개했다. 카롤링 왕조시대의 건물로 8세기경에 세워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건축했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스위스 최대의 건물이며, 정문 양쪽에 위치한 2개의 둥근 탑이 인상적이었고, 내부에는 자코메티가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였다.

이 성당을 둘러보며 쾰빙글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루터와 칼빈의 그늘에서 있던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인물로 볼 수 있다. 쾰빙글리는 루터보다 7주 늦은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작은 도시 빌트하우스에서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그 부락의 총장을 역임해왔고, 그의 아버지는 당시 시장이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는 카톨릭 사제였다. 쾰빙글리의 삼촌은 대학 학장이었는데, 쾰빙글리는 삼촌을 통해 신학교육을 비롯 새로운 학문 조류였던 인문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

다. 루터는 입재설을 주장했다.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입재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쾰빙글리는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입재를 강하게 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쾰빙글리는 용병을 반대했다. 당연히 스위스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됐다.

또한 루터나 칼빈처럼 그는 대작을 남기지 못했다. 종교개혁에 관

### 47년간 목회한 그로스빈스터 성당엔 한 손에 성경, 한손엔 칼 든 동상 있어 성찬 기념설로 루터와 결별...문헌적 공헌 빈약해 종교개혁자 중 덜 알려져



유럽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계탑(후라우윈스터성당)



칼빈이 목회했던 쎄피에르 교회에서 기념 촬영



한 손엔 성경, 한손엔 칼을 들고 서있는 쾰빙글리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쾰빙글리는 10세 때 라틴어문법, 음악 그리고 변증학을 배웠으며, 열성적인 그의 부모는 영특했던 쾰빙글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외지로 유학을 보냈다. 베른 대학과 비엔나 대학을 거쳐 1502년 바젤 대학에서 당대 최고학자인 에라스무스의 개혁 사상을 소개받아 인문주의자가 됐으며, 후일 에라스무스를 직접 만나 그와 학문적 교제를 나눈 후, 서신을 교환하며 절친한 사이가 되어 더욱 철저한 인문주의자가 됐다.

쾰빙글리의 신학과 종교개혁 사상

쾰빙글리와 루터는 모두 카톨릭 교회의 화체설, 즉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구교의 교리를 반대했

정했다. 그는 성찬은 감사와 기념의 공동식이라고 이해했다. 루터의 '입재설'과 쾰빙글리의 '기념설'을 두고 서로는 신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더구나 카톨릭에 맞서 교회개혁을 이루어 가면서 그가 반대했던 제도가 스위스의 용병제도. 스위스 군인들은 용감하기로 소문이 나서 주변 국가에서 이 나라 군인들을 사가려고 다투다시피 했다. 그 상품화된 군인들 때문에 가난하기 짝이 없던 스위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알프스 산에 둘러싸여 경작지가 부족했던 탓에 스위스는 지금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았다. 용병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오는 방방한 생활에 빠져 사회적

한 문헌적 공헌이 빈약한 점도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 쾰빙글리가 비교적 덜 알려진 이유가 됐다.

쾰빙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그로스빈스터 예배당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었다. 한 손엔 성경, 한손엔 칼을 들고 있다. 종교개혁은 결국 정치개혁과 분리될 수 없었던 그의 생애를 말해주는 듯하다.

후라우윈스터 성당 & 쎄피에르(St. Peter)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행하라!"고 외쳤던 쾰빙글리의 도시 취리히엔 또 하나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윈스터 성당이 서 있다.

그로스빈스터와 마주보고 있는 이 성당도 유서 깊은 성당이다. 853년 동프랑크 왕국의 루트비히 2세에 의해 수녀원으로 세워져 그 후 12세기부터 14세기 때의 고딕 양식의 사원으로 개조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고 한다.

종교개혁 이후 화려한 양식이 배제된 채 시청사의 별관으로 사용된

스위스에서 가장 큰 시계탑이 있는 교회로 알려진 이 교회는 로마의 성체가 있었던 뒷편 언덕인 린덴호프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로마시대 주피터 신전이 있던 자리로 8-9세기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으며 13세기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 구조의 건물이 일부 남아 있었다.

13세기에 지어진 뾰족한 첨탑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지름이 약 8.7m이며, 시침이 3m, 분침 4m로 유럽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계가 있었다. 원래 이 탑은 1911년까지 화재 감시대로 사용됐던 곳으로 실제로 감시원이 거주하면서 화재의 발생 방향을 깃발로 알리는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건물의 내부에는 핑크오렌지 빛의 대리석 기둥이 정교한 치장벽도, 수정 상달리에와 함께 부드럽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회의장이 있다고 한다.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취리히 수도권에는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을 만큼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취리히는 스위스의 주요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이자 때때로 스위스의 문화수도도 불리운다고 한다.

이곳에 세계축구연맹(FIFA)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녹색도시로 불릴 만큼 강과 호수와 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수를 봐도 산을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스위스. 이곳 취리히에서 1박을 한 후 독일 하이델베르그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제 4차 종교개혁발상지 학습여행 안내]

크리스천윌리(발행인 조명환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제 4차 종교개혁발상지 학습여행을 실시한다.

9월11일~23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진행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등을 순회 방문하며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밟게된다.

경비는 \$3,900.- 자세한 것은 (213)383-2345나 cweeklyusa@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적도 있으며, 1969년 성경에 기초한 내용으로 샤갈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해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됐다.

또한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하는 성 피터 교회의 모습도 일품이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